

2023

#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

## 발 간 사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풍요와 번영을 성취해냈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통일부는 1969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분단 구조를 해소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도 도출하였지만, 한반도 통일에 이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새로운 진영 구도 속에서 요동치고 있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졌습니다.



---

이처럼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새기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여 북한에 제의하였고,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분단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애를 썼습니다. 북한주민의 민생과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폭넓고 두텁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 정부들의 노력들을 발전적으로 이어받으면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역대 정부의 정책적 성과와 남북 간 합의는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시대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원칙을 정립하고,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3 통일백서」에는 이러한 노력의 발자취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분발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통일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2023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의 거침없는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통일 미래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통일부장관 **권영세**

# Contents

발간사	2
-----	---

## 제1장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제1절 정책 추진배경	16
제2절 비전 및 추진원칙	20
① 비전	20
② 추진원칙	21
제3절 중점 추진과제	23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23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26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의 고통 해소	27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28
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29
제4절 정책 추진성과	30
① 「담대한 구상」의 적극 추진	30
② 일관된 원칙으로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정립 추진	31
③ 북한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33
④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 마련	34
⑤ 대국민 소통과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체계적 통일준비	34

## 제2장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제1절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40
①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40
② 시민사회 협력 및 국민 공감대 확산	41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3
④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45

<b>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b>	<b>49</b>
① 이산가족 현황	49
②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50
③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55
<b>제3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b>	<b>56</b>
① 현황	56
② 문제 해결 노력	57
<b>제4절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b>	<b>62</b>
① 남북 간 인도협력 추진 노력	62
②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활성화 노력	63
③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기반 조성	66
④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69

## 제3장

###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b>제1절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정비</b>	<b>76</b>
① 분권·협치 교류협력 기반 조성	76
②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사업 지원	77
③ 법·제도 개선	78
④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78
<b>제2절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b>	<b>80</b>
① 문화유산 교류	80
② 종교 및 학술·문화예술 교류	83
③ 남북 체육교류	83
④ 남북 사회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84
<b>제3절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기후·환경공동체 구축</b>	<b>85</b>
①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 마련 및 전문역량 축적	85
②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 및 공론화	86
③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노력	87
④ DMZ 그린평화지대화 추구	89

# Contents

<b>제4절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체계적 관리</b>	<b>95</b>
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주요 경험사업 관리	95
②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98

## 제4장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b>제1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진</b>	<b>108</b>
①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노력	108
② 남북 연락채널의 상시적 운영	109
<b>제2절 남북회담 재개 대비 및 회담역량 강화</b>	<b>111</b>
① 남북회담 역량 강화	111
②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보완	112
③ 남북대화 대국민 소통 강화	112
④ 판문점 견학	114

##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b>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b>	<b>121</b>
<b>제2절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체계 구축</b>	<b>122</b>
①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122
②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128
③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131
④ 북한이탈주민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133
⑤ 북한이탈주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 개최	136
⑥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137

<b>제3절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b>	<b>139</b>
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39
② 자립지원	140
③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45
④ 남북 주민 간 교류·소통 강화	148
<b>제4절 북한이탈주민 사각지대 최소화</b>	<b>155</b>
① 위기가구 안전지원 협업체계 구축	155
②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58
③ 하나센터 기반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159

## 제6장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b>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b>	<b>166</b>
① 통일교육과정 운영	166
②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170
③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177
④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179
⑤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180
<b>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b>	<b>183</b>
①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183
②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184
③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185
<b>제3절 사회통일교육 내실화</b>	<b>188</b>
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실시	188
②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민간 부문 통일교육 활성화	190
③ 통일관 운영	193
④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195
⑤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197

# Contents

<b>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 강화</b>	<b>199</b>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199
②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200

## 제7장

###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b>제1절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b>	<b>208</b>
① '사회적 대화' 추진	208
②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적 계승	210
③ 통일*센터 운영 및 확대 추진	212
④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215
<b>제2절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b>	<b>224</b>
① 주요국 정부 대화	224
② 양자·다자회의 및 정책설명회	226
③ 통일 공공외교	230
<b>제3절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b>	<b>234</b>
① 북한정보포털 운영	234
② 북한자료센터 운영	235
<b>제4절 통일법제 구축</b>	<b>239</b>
<b>제5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b>	<b>240</b>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240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241
③ 2022년 사업비 집행 실적	243



## 부록

## APPENDIX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248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260
①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260
② 남북교류협력 현황	264
③ 개성공단사업 현황	267
④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269
⑤ 남북회담 추진 현황	272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273
⑦ 국립통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280
⑧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280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82
① 기금 조성 실적	282
② 기금 사용 실적	284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286
찾아보기(INDEX)	288

# 01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제1절 | 정책 추진배경

제2절 | 비전 및 추진원칙

제3절 | 중점 추진과제

제4절 | 정책 추진성과

UNIFICATION WHITE PAPER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202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더욱 엄중해진 가운데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계속되었다. 대통령 신년사(1.1.)와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정부는 대화와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4월에는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였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의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성과는 이어받되,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왔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계기마다 대화를 제의해 왔다.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여 국민적 합의 기반을 넓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동시에 주요국 정부와의 대화 등 각종 계기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과제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부의 기능 재편도 추진하였다. 특히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통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0년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과 미북대화를 줄곧 거부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2022년 연초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였으며, 3월 24일에는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발사하면서 2018년 4월 약속한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화하고 2022년 말까지 무려 70여 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또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선제 핵포기 불가 입장을 명문화하고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세적 핵정책을 이어갔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노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내부 체제모순에 따른 경제난이 지속되었다. 또한 당적 지도·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사조 유입을 단속하는 등 체제 결속을 도모하였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진영 간 대립구도가 확대되는 등 국제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 북·중·러 밀착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대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 상호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대북제재의 실효적 이행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분단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통일부·교육부가 실시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초·중·고생이 31.7%에 달하는 등 젊은 세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아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책무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사(5.10.)에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 대통령 취임사, 「담대한 계획」 표명(5.10.)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 대통령 8·15 경축사, 「담대한 구상」 제안(8.15.)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를 북한에 제의하였다.

「담대한 구상」은 과거 비핵화 방안의 장점은 계승하면서도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변화된 통일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핵 문제를 미북 간의 문제로 보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과감한 초기조치를 취해나가고자 하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상응조치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동시적·단계적 상응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성과는 이어받되,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간다는 ‘이어달리기’를 추구하고 있다. 그간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 통일부장관, 취임사(5.16.)

“과거의 성과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식으로는 통일정책의 발전을 담보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정부들이 쌓아놓은 토대 위에 이제 저와 새 정부의 통일철학을 쌓아올려서, 더욱 새롭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해 온 대북정책의 관행에서 벗어나 궁극적 목표인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과 평화통일을 향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해 왔다. 정부가 그간 통일 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국력격차 등을 고려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배경과 목표 하에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2022년 11월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원칙,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체계	
비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추진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li> <li>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li> <li>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li> </ul>
중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li> <li>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li> <li>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li> <li>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li> <li>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li> </ul>

### 1 비전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비전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2 추진원칙

### (1)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고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8.17.)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 (2)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서,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유연한 상호주의란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상호 관심사와 차이도 고려하는 등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접근을 꾀한 것으로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

### (3)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헌법」 제4조가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과 추진원칙 하에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 1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담대한 구상」은 지난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이다. 「담대한 구상」은 단순히 유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3D’의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외교와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실효적 경제지원과 함께 정치·군사적 조치의 추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며,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로,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신뢰의 틀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 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조치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등의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쳐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동 대금을 활용하여 북한이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초기 조치를 통해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여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를 담은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 5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칭)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조정해 나갈 것이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조치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함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여 전면적으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군비통제를 본격화하여 군사적 신뢰 증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 초기조치 + 포괄적 합의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협상모멘텀 확보·유지



- 포괄적 합의 도출
  - 비핵화 정의·목표
  -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 등 로드맵 합의



### 실질적 비핵화

#### [경제협력]

-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 [미북관계 개선]

#### [평화 구축]

- 평화체제 구축 논의

#### [군사적 긴장완화]

- 군사적 신뢰구축



### 안전한 비핵화

#### [공동번영]

-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 [미북관계 정상화]

#### [평화 정착]

-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 [군사적 신뢰증진]

- 군비통제 본격화

또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자 한다.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는 사회문화·기후환경·민생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서부터 경제·인도·사회문화 등 남북협력의 의제를 폭넓게 열어둘 것이다.

아울러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실용적 접근과 유연함은 잃지 않되, 우리의 국격과 핵심가치는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대북 접촉과 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갈 것이다.



### 3]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의 고통 해소

정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산모 등 취약 계층 지원에서부터 방역과 감염병 대응, 심각한 재난상황 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발걸음인 만큼, 정부는 우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북한인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과 추세를 감안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실효적인 돌파구를 조속히 마련해야하는 절박한 문제이다. 이산가족의 전원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미래 교류에도 대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역류자의 생사확인,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밀착 지원하고 사회 적응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지원체계를 튼튼히 하고,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고용과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 취약한 가구와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 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남북 간 공감대가 있는 민족문화·역사 등의 부문에서 중단된 교류가 재개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체육·예술·종교·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자 한다.

또한 방송·언론·통신 분야에서 상호 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하고 남북 간 상호 개방은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은 당면한 현안이자 국경이 없는 문제인 만큼 기후 변화 및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산림·식수·위생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협력, 남북 간 수자원 공동 이용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또 비무장지대(DMZ)를 생태, 문화,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담고 있는 세계적인 협력·소통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5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1994년 발표 후 약 30년이 지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통일준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기반조성계획 수립과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기반을 내실 있게 조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2030 청년 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통일·대북 정책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질 높은 통일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인프라를 연계·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미래세대의 통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뉴미디어,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유관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일 공공외교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민간과 재외동포의 활동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① 「담대한 구상」의 적극 추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에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북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북한이 담화(8.18.)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왜곡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설명자료를 발간(11.21.)하여 대내외에 이를 공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11.21, 서울)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충남도민 대토론회(12.14, 충남) 등을 추진하였다.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11.21.)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충남도민 대토론회(12.14.)

국제사회로부터도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11월 1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EU 외교안보정책담당 대변인은 8월 22일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국 새 정부의 최근 제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한국 측과 더욱 상세히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장관은 10월 4일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을 예방하고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였으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하였다.

### 한미일 정상회담 프놈펜 공동성명(11.13.)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책임을 재확인함.”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② 일관된 원칙으로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정립 추진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적인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면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 우리 측 시설 무단 철거와 사용에 대해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7.11, 10.18.)

#### 북한 내 우리 측 재산 침해 관련 통일부 입장 발표(7.11.)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하였다. 권영세 통일부장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6.21.),

#### 통일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6.21.)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리선권 통전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통지할 것을 촉구(6.28, 9.5.)하는 등 계기마다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였다. 비록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호 간 신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③ 북한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 아래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개(5.12.)하자, 방역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5.16.)한 것을 비롯하여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연장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이사를 추천(9.13.)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2년여 만에 개최(8.25.)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제3차 「북한인권증진계획」을 협의(12.9.)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년 만에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인권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10.31.)하였으며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12.14.)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9.8.)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최초로 북한 억류자 가족을 면담(10.21.)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4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 마련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향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였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민족문화·역사, 체육·종교·학술·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재개를 지원하였다.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서는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협력, 남북 간 수자원 공동 이용 등으로 남북 그린데탕트의 사업 범위를 넓히며 한반도 기후·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1월에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홍보하였다.

#### 5 대국민 소통과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체계적 통일준비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에 기반하여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1994년에 발표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직접 국민들과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사통팔달'(사방으로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팔방으로 이어지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의 추진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총 31회의 '사회적 대화'가 개최되었으며 2,253명이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였다.

한편 주요국 정부와의 대화, 양자·다자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6.8.),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8.8.),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10.4.),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 장관(10.14.) 등을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독통일자문 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9.14.~15.)하였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개최(8.30.~9.1.)하였다. 또한 주한 외국 공관과 주요국 정부 대북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일명 ‘UniOn(Unification On) Talks’를 개최(12.16.)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 02

##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제1절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제2절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제3절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제4절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UNIFICATION WHITE PAPER



##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도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역류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처음으로 내부의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5월 16일 북한에 코로나 보건·방역 협력을 신속히 제안하였다. 정부는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북한 측에 제공하고 우리 측의 방역 경험 공유 등 남북 간 기술협력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2022년 9월 8일에는 통일부장관이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공개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국경 봉쇄를 이어가며, 외부로부터의 지원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77차 유엔 총회

에서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 1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동포애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국가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 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등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7.19.)하였고, 2022년 11월 제77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지난 6년간 출범이 지연되어 온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기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북한인권 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시민사회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는 제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직후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국회에 공식 요청(7.25.)하였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와 김범수 세이브엔케이 대표를 추천(9.13.)하였다.

정부는 2022년 8월 25일 2년 3개월 만에 통일부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정책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여 북한인권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공개 보고서 발간 문제를 협의하였다. 동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 유관부처 간 북한인권 관련 정보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2020년 5월 11일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9일에는 동 협의회가 개최되어 새 정부의 정책비전이 담긴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안)(2023~2025)'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2기 동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식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은 제5조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통일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위촉한 동 자문위원회 1기 자문위원 임기가 2019년 1월 만료된 이후 2기 자문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동 자문위원회는 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함께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2] 시민사회 협력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북한인권, 인도지원 단체 간 상호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22년 3월에는 북한인권,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의 12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지속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3.2.~4.)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북한인권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12개 민간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세무회계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4.19.~20.)하였다. 10월 31일에는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민관협력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일부장관은 6년 만에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8.26.)하여 탈북어민 복송 논란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정책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북한인권포털」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사회 내의 북한인권 논의에서 균형 있는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북한인권단체 역량 강화 연수(4.19.~20, 안동)



북한인권 민관협력 합동 워크숍 (10.31, 서울)



###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였다.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규명과 건설적 관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2022년 제77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납치, 억류 등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피해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도 촉구하는 문안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서울사무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통일부장관은 6월 29일 오헤아 키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9월 2일 신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관, 오헤아 키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6.29)



장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9.2.)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그 밖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북한인권 유사 입장국 정부와도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실무적 소통을 지속해왔다. 주한 대사관 및 방한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일본의 북한인권주간(12.10.~16.)을 계기로 도쿄와 니가타를 실무 방문하여 납치자 및 북송교포 문제 등 일본 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참관하였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12.14.)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진행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였고,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 특사,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소장, 앤드류 여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정훈 연세대 교수, 김범수 세이브엔케이 대표, 요안나 호사낙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진단하고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12.14, 서울)

한편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기에 2023년부터 정부예산에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예산 20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연간 5백만 달러 이상을 국무부와 민주주의 진흥재단 등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지원해오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다. 북한인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한층 높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권분야 건설적 관여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협력기금에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민간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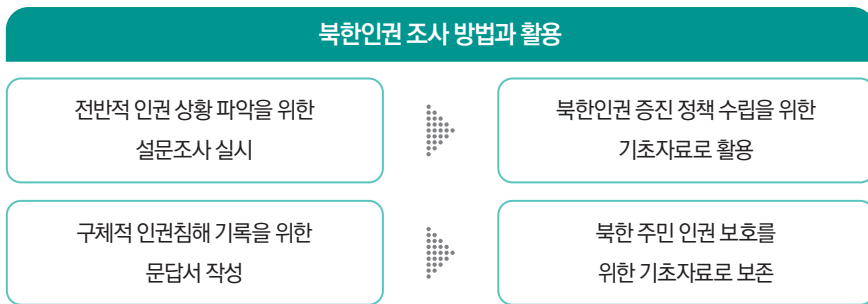
정부는 책임 규명과 관여라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에 동참하며,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와도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 4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 (1) 개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법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조사 원칙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문답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된 기록 원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로 분기별 이관하고 있다.



북한인권 조사항목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항목 중 ‘자유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북한 내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도 조사하였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실태 주요 조사 결과는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 (2) 북한인권 조사·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12명을 조사하였고, 2022년에는 하나원에 입소한 4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 26명(55.3%), 남성 21명(44.7%)으로 구성되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평양시가 34%,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약 38.3% 등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46건으로, 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로 이관하였다.

분기별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록 작성 현황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조사대상자(명)	15	8	15	9	47
조사기록(건)	15	8	14	9	46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매년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2021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내 유관부처 및 유엔기구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 형식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작성에 착수하였다.

또한 '사회권' 분야의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북한 내 여성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북한주민 근로권 실태 심층조사·연구'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 (3)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 체계화

2022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조사 방식과 진행 방법, 기록관리 등 북한인권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5년간 축적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권리별 조사 절차와 설문조사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기존의 복잡한 분류체계를 국제인권규약 권리별로 정비하고 정비된 분류체계에 따라 개별 사건을 등록하여 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학계, 법조계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 조사자문단을 운영하고, 국내외 인권전문가들과도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의 보다 충실한 수행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과의 상시적 교류, 합동 워크숍 개최(11.29.)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다.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11.29.)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대상 설명회(12.14.)

### 1 이산가족 현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3만 3,675명이다. 이 중 9만 1,051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4만 2,624명이다.

####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 ①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	12,132	15,817	8,186	3,951	2,538	42,624
비율	28.4	37.1	19.2	9.3	6.0	100

##### ② 출신지역별

(단위: 명,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	8,912	4,583	2,655	3,999	1,265	1,393	631	19,186	42,624
비율	20.9	10.7	6.2	9.4	3.0	3.3	1.5	45.0	100

##### ③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인원	26,107	16,517	42,624
비율	61.2	38.8	100



④ 거주지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	10,917	1,850	988	3,452	407	916	349	12,887	2,578	1,422
비율	25.6	4.3	2.3	8.1	1	2.2	0.8	30.2	6.1	3.3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계	
인원	1,339	741	630	1,311	1,035	439	177	1,186	42,624	
비율	3.1	1.8	1.5	3.1	2.4	1	0.4	2.8	100	

##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 (1)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남북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중단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 9월 8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 당국에 공개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상기의 제안이 유효함을 밝히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문제 관련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9.8.)



한편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국내 20개소 화상상봉장을 정기 점검하고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등 남북이 합의하면 언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 제3차 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이산가족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하였고, 2021년에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정책 수요도 반영하였다.

####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개요

##### 비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 목표

이산가족의 전면적 교류

이산가족 정책 추진 역량·동력 강화

##### 전략

- ① 고령화 상황 감안,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
- ② 이산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 수립·시행
- ③ 이산가족 정책 제도화 수준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과제

- ①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 ② 국군포로·남북자·역류자 문제 해결
- ③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대
- ④ 이산가족 위로 및 공감대 확산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2만 6,682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세 가지 검사(상염색체,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를 실시하였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는 2015년 구축한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2017년에는 그동안 민간 검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유전자 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질병관리청 국립인체자원은행으로 이관함으로써 유전자 검체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중간보고회(9.29.)

통일부는 2005년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각각 2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시범 교환하였다. 이후,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12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상편지 제작을 재개하였고 2022년까지 총 2만 5,078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다. 이 중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영상편지는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reunion.unikorea.go.kr)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과 협업하여 매주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송출하고,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공개방송 등에 직접 출연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50주년 공개방송

아울러 정부는 2020년 이산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 메뉴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사연을 담은 웹툰과 영상물을 제작·게시하고 「온라인 고향 사진관」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2) 이산가족 위로사업 추진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우선,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22년 7월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 기념일 지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이산가족 문제를 기념하기에 적합한 날짜,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유관기관·민간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회에서도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2022년 8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9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추석 이틀 전(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령 이산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면 초청행사를 재개하였다. 설·추석에는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경모행사에 통일부 장·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산가족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 및 동북부, 경기, 대전 지역의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서울 동북권 초청행사는 청와대 견학으로, 경기 지역 초청행사는 남북출입사무소·판문점 견학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가족의 사진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여 증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설과 연말에는 독거·취약계층 이산가족들에게 위로



서울지역 초청위로행사(5.25, 남북통합문화센터)



경기지역 초청위로행사(11.23, 판문점)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위로 방문(9.7.)



제53회 합동경모대회(9.10, 파주 임진각)

서한과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추석에는 통일부장관이 직접 고령 이산가족의 가정을 위로 방문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관련 민간단체인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홍보·문화·학술 활동 등에 매년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③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제정한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2017년까지 총 4회 개정하여 민간 차원에서 생사확인 시 300만 원, 상봉 시 600만 원, 서신 교환 등 교류 지속 시 8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가 강화되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수	96	231	314	279	287	466	303	289	201	151	103	54	23
지원금	67	163	279	349	440	692	364	252	235	172	114	76	22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2	누계		
건수	12	16	28	12	10	10	14	12	7	0	2,918		
지원금	12	16	51	23	16	18	34	21	15	0	3,431		

## 1 현황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6·25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출범하여 2016년까지 활동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신고 접수된 납북피해 사건 5,505건을 심사하여 4,777명을 전시 납북자로 결정하였다.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그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하였으며, 9명은 탈북해 귀환하였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명)

구분	어선원	대한항공 (KAL)납치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랍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	-	8	3,310
	탈북·귀환	9	-	-	-	9
미귀환자	457	11	30	6	12	516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쟁 포로를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탈북·귀환 이후 2022년 12월 말 기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다.

북한은 2013년 김정욱 씨에 이어 2014년에는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였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3명을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남북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이들의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 납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납북자 명예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을 설립하였다. 기념관은 전시 납북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었던 납북자들을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통일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종 전문 박물관인 기념관은 전시 납북자 관련 유물 4천 9백여 점을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유물들은 가족들로부터 기증받은 납북자 개개인의 사진·저작물·생활용품과 구입·복제 등을 통해 수집한 전시 납북 관련 문서·신문·서적·사진·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22년에는 유물 823점을 새로 구입하는 한편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라는



특별전시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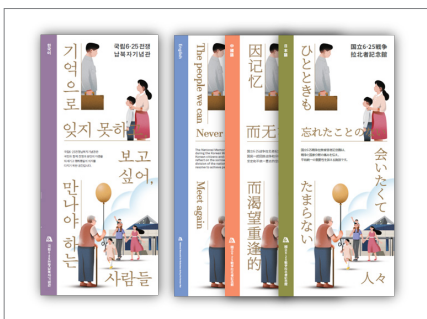
유물 구입 「민간인 자유승환 안내문」



남북자 이야기책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대면교육 「우리가족 기억상자」



기념관 홍보자료 4종(한·영·일·중)



「철조망」 야외 포토존 설치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전시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였다. 남북자 이야기책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를 발간하고, 6·25전쟁 기념일을 계기로 「우리가족 기억상자」 대면교육 및 「카드로 만드는 남북자 가족 이야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전시 남북 문제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념관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종으로 신규 제작하고,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터, 포토존, 안내판 등 시설을 정비하였다.

개관 5주년을 맞아 2022년에는 특별전시, 교육,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2021년보다 149.8% 증가한 32,08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2022년 12월 말 현재 15만 9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전시 남북자의 명예 회복과 권익 신장을 위해 (사)6·25전쟁남북인사 가족협의회에 매년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 개최한 ‘6·25전쟁 남북희생자 기억의 날’(6.28.) 기념행사에 통일부장관이 참석하는 등 행사를 지원하고, 전시 남북자 가족을 초청하여 기념관 개관 5주년 기념식(11.29.)을 개최하는 등 남북자들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6·25전쟁 남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6.28.)



기념관 개관 5주년 기념식(11.29.)

2022년 12월 말까지 피해위로금 등 약 152억 원을 납북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 결정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분	신청	지급 결정	지급액
피해위로금	438	426	13,211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4	3	261
계	461	438	15,245

정부는 전후 납북피해자의 권익 향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법정단체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매년 1억 8,5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통 납북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단체장 면담, 납북자 가족 위로 방문 및 간담회도 연중 수시로 실시하였다. 무주택 납북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귀환납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와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2022년 10월 통일부장관이 최초로 억류자 가족 2명을 면담하여 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정부의 억류자



통일부장관, 억류자 가족 면담(10.21.)



통일부차관, 납북자 가족 초청 간담회(9.10.)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명절 계기 위로 방문 등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과의 협조도 한층 강화하였다. 2022년 4월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12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이산가족, 미송환 전쟁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가 반영되었다. 또한 2022년 11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미일 정상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① 남북 간 인도협력 추진 노력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처음으로 내부의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정부는 신속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검토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5.16.) 중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지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하는 대북통지문을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 측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 측의 방역 경험 전수 등 기술

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해당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는 등 우리 측의 협력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지원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통일부는 업무보고(7.22.)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활성화 노력

### (1)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연장 추진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게 총 100억 원 규모로 사업당 5억 원 내에서 사업비 100%를 지원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 북중 국경봉쇄 장기화 등으로 북한 측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정부는 ‘이어달리기’ 정신과 민간단체의 요청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제32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2022년 12월 10일 까지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총 14개 단체에 67억 3천만 원 규모의 기금지원이 결정되었고, 그중 3개 단체가 12억 원 규모의 물자를 북으로 반출하였다. 반출된 3건은 영양 물자이며 그중 2건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반출될 수 있었다.

## (2)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개편

정부는 최근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1999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해 반출을 승인하거나 기금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체계에 따라 대북지원 사업을 관리하고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해당 사업이 반출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요건을 갖추어 반출 또는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하여 반출을 승인하거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 (3) 국내 민간단체 인도협력역량 강화 지원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협력 민간역량 강화사업과 인도주의 청년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도협력 민간역량 강화사업은 남북 인도협력 분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의 수행·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교육프로그램과 맞춤형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의 인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북 협력 접촉면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대북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체운영, 사무능력 및 사업능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세미나(토크콘서트), 현장 견학, 인도지원 사례공유 세미나 등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민간단체 수요 취합 후 선정 단체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대북지원단체 실무자 등 역량강화 세미나(11.22.)



대북지원단체 등 실무자 대상 토크콘서트(11.23.)

인도주의 청년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인도협력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향후 남북 인도협력 분야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육성하여 인도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와 협력하여 청년 교육생들을 10여 개의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교육생들이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대북지원 사업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4) 반출승인·제재면제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지속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북중 국경 봉쇄가 여전한 가운데 대북 인도적 물자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물품 반출 및 유엔 제재면제 신청,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등에 절차상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2022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신청에 대해 「남북교류 협력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총 12건을 승인하였다. 승인 품목은 영양물자와



보건·의료 품목들로 인도협력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북한 취약계층의 시급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유엔 대북제재 해당 물품 제재면제 신청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의 대북인도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유엔 제재면제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대북 인도적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직·간접 접촉을 원하는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85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수리하였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도협력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대북지원 사업자 신청,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신청 등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인도협력 관련 사업 절차,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과 관련 통계,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대북 인도협력 관련 보고서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기반 조성

#### (1)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전체회의 개최

정부는 관계 부처, 공공기관, 직능단체, 지자체, 국제기구, INGO, 민간단체, 학계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는 구심점으로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전체회의’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개최하였다. 9월 30일에 개최된 2022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대북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한데 모으고, 다양한 협력주체들이 관련 분야의 분석과 현황 정보를 공유하며 대북 협력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022년 전체회의는 우선순위와 관심이 높은 3개의 주제(①북한의 코로나19와 포스트 팬데믹 시대 대북 보건 의료협력 ②대북 보건의료협력의 상시 이슈: 결핵과 영양 ③지속 가능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전략행동계획」)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2022년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개별적·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대북지원 주체들이 협력하여 북한과 지속 가능한 증장기 협력을 위한「전략행동 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전략행동계획」은 유엔 기구들이 북한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증장기 협력계획을 참고한 것으로 ①건강안보 환경 조성 ②주요 질병부담 완화 ③회복 탄력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④혁신적 연구개발 협력 ⑤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5개의 주요 협력 영역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관심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각종 주체들과 현안들도 공유하여 대북 보건의료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2022 전체회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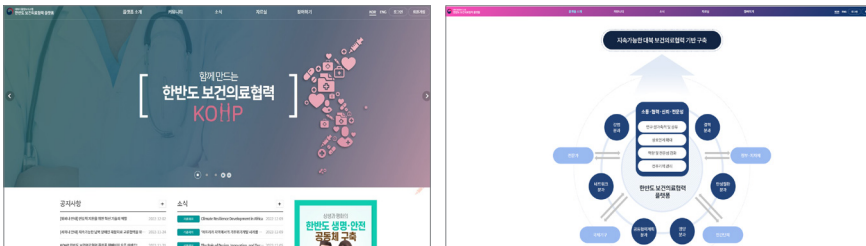
통일부장관 축사



세션 진행

## (2) 전문가 분과별 연구 추진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전체회의 외에 온라인 누리집도 구축하여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협력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누리집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들이 관심 주제별로 관련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대북 보건의료협력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누리집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만성질환, 영양, 결핵, 네트워크 등 분야별로 전문가 웨비나도 수시로 개최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였다. 분야별 웨비나는 2022년에 추진되었던 분야별 연구①대북 감염병 관리 및 방역대응체계 강화·지원 방안 구축 연구 ②북한 만성질환 관련 의료체계 강화 방안 연구 ③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실태 분석 및 협력 방안 연구 ④북한 결핵 실태 평가와 역량 강화 방안 연구 ⑤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협력 공감대 확산 방안 연구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 4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 (1) 민관정책협의회 개최 등 국내 민간단체들과 협력

정부는 인도적 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개별 민간단체 면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신임 북민협 회장단과 면담(6.30.)을 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에 있어 ‘이어달리기’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통일부장관, 북민협 회장단 면담(6.30.)

통일부차관과 북민협 회장이 공동 의장인 민관협을 통해 대북 인도·개발협력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통일부와 유관부처 및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 조율, 인도적 대북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대북지원사업자 제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고 물자반출 등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도협력 청년인력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개별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접촉·반출기금지원 등을 위한 상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인도협력 민간단체들의 인도지원 경험과 노하우 등을 청취하기 위한 인도협력 민간단체 전체회의(3.16.)와 민간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3.21.~25, 6.23.~30, 11.29.~12.2.)하여 2022년 인도협력 관련 국내외 및 북한 내부, 남북관계 등에서의 인도협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인도협력 분야 정책 추진방향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국제사회와의 협력

1995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첫 대북 인도협력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는 2022년까지 국제기구를 통해 총 2억 6,67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북한 취약 계층을 위한 꾸준한 공여와 지원을 통해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 북한 주민의 보건·영양 상황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주요 국제기구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및 대북 지원 사업에 관하여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 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였다. 2022년 7월 14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당시 WFP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통일부장관, WFP 사무총장 면담(7.14.)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정부는 UNICEF와는 코로나19 확산 등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계속 공유하면서 대북 사업 재개에 대비해 왔다.



# 03

##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제1절 |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정비

제2절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

제3절 |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제4절 |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체계적 관리

UNIFICATION WHITE PAPER



# 2022

##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South-North Korea Joint Economic Development Plan International Forum 2022



# 2022



##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진행하면서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류협력 공감대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 교류협력 기반 구축 등 향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 주력하였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발굴, 그리고 민족문화·역사 등의 부문에서 중단된 교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체육·종교·학술·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다.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서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국정과제(94-4)로 선정하였다. 산림·식수·위생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협력,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한반도 기후·환경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비무장 지대(DMZ) 접경지역을 생태, 문화,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담은 세계적인 협력·소통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도 추진하였다.



경제교류 분야에서는 「담대한 구상」의 기초 아래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춘 중장기 남북경협 청사진인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향후 「담대한 구상」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네트워크, 경협 기업과의 소통 등 남북경협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판로개척 등의 지원도 병행하였다.

### ① 분권·협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정부는 지자체가 교류협력에서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특히 2022년 7월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지방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지자체 교류협력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워크숍과 포럼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지자체 협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집합방식의 회의 진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국 광역 지자체를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찾아가는 협력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정부-지자체 법정협의체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정부-지자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과 의제 다양화 등 동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5회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민간과의 소통에 노력하였다. 교추협은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및 주요 의결 내용

차수	일자	방식	주요 의결 내용
제323차	1.25.	서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자금 지원 등 8건
제324차	2.10.	대면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및 기업운영관리 경비 자금 지원 등 3건
제325차	2.25.	서면	DMZ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자금 지원 등 3건
제326차	4.18.	서면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 2건
제327차	6.30.	서면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기간 연장 등 2건

## 2]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접촉 및 대북제재 관련 사전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였다. 절차 관련 상담(1,041건), 대북 반출입 물자 유엔 대북제재 사전검토(30건 430개 품목) 등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남북 간 교역·경협 및



남북교류협력 설명회(9.2, 제주)



남북경협 실무아카데미(6.2.-23.)

인도지원 관련 컨설팅(13회)을 진행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 2회(2.24, 9.2.), ‘남북경협 실무아카데미’ 2회(6.2.~23, 10.27.~11.17.) 등 지자체·민간의 교류협력 역량 강화 노력도 지속하였다.

### 3 법·제도 개선

정부는 2022년 7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7.26.)하여 법령상 위임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에 고시에서 규정하던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법령상 위임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그 밖에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의원 발의 개정안(14건)의 입법과정을 지원하였고, 유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류협력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 노력을 지속하였다.

### 4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2019년) 및 코로나19 등으로 남북 간 육로 통행이 중단되고,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로 인해 출입경 중단 상태가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출입사무소는 출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 군·관세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원 및 차량심사, 검역, 남북관리구역 호송 등 모의훈련을 실시해왔다. 2022년에는 총 66회의 훈련을

실시하여 출입경 매뉴얼 숙지, 전산장비 점검, 유관기관 연락망 현행화 등을 통해 출입경 재개에 대비하였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4회) 및 ‘실무협의회’(4회)를 개최하고, 모의훈련 계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였다.



차량심사 모의훈련(5.12.)



남북관리구역 호송 모의훈련(9.20.)

남북출입사무소 도로출입시설과 철도출입시설(도라산역)은 인근에 도라 전망대, 제3땅굴 등 체험 시설이 있어 접경지역 현장 연계 방문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출입시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주요인사, 청소년, 외국인 등 총 9,025명이 방문하였다.



국내 대학생 방문(9.16.)



태국이민청 관계자 출입사무소 방문(9.19.)

### 1 문화유산 교류

#### (1)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민족공동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남북 주민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추진해 왔다. 8차례 공동 발굴 결과, 계획면적 총 33,000㎡ 중 19,770㎡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총 17,9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남북 공동 발굴사업 사업 재개 노력을 하면서 그간 발굴성과를 활용하여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운영(manwoldae.org), 디지털 복원,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등 대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을 전개하였다.

디지털 기록관 운영은 2020년 12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60여 만 점의 유물 자료 중 12만 건을 홀로그램, 3D 복원영상 등의 자료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4편의 수상작을 기록관에 공개하고, ‘월간 만월대’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발굴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개성 만월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은 고려 황궁의 모습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로 복원하여 가상으로 만월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서부건축군(1~5건물지군)에

대한 고증연구는 물론 복원 설계된 건축물을 VR콘텐츠로 개발하여 순회 전시회에 활용하였다.

2020년부터 시작한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는 남북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2022년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인 부안(4.22~7.17), 천안(5.20~7.31), 하남(8.2~9.18), 대전(8.16~10.15), 부산(10.15.)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람객이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증가(2020년 2개 지역 11,950명, 2021년 4개 지역 28,067명, 2022년 5개 지역 41,678명)하였고, 96% 이상의 관람객이 만족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일부



개성 만월대 순회 전시 VR체험(8.16~10.15, 대전)

## (2)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이를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2005년 결성되었다. 남북 간 협의를 위하여 사업회에 남측편찬위원회와 북측편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남북이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남측편찬위원회에는 10인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회는 그간 총 25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30만 7천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남북 간 표기법에 합의하여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6년 이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남북 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표제어를 대상으로 교정·교열 작업과 말뭉치(평소 우리가 쓰는 말이나 글에서 표본이 될 언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놓은 언어 자료) 정리, 삽화 그리기 등을 추진해왔고,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하는 등 남북공동편찬회의 재개에 대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사업도 진행하였다. 『겨레말큰사전』 온라인(3D) 홍보관과 유튜브 ‘겨레말 TV’를 상시 운영하고, 남북 전문용어·남북 수어(手語) 등을 주제로 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였다. 남북의 기초 생활용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남녘말 북녘말」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편찬 성과를 활용한 소사전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을 발간(10.9.)하여 전국의 교육청과 도서관 등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정을 교과서에 수록(총 32종, 8과목)하는 등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남북 언어문화 이해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부산(7.19), 전주(9.27), 청주(11.19)에서 ‘전국 겨레말나들이’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였고, 이를 유튜브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11.3.~4.)



‘겨레말TV’를 통해 생중계 하였다. 한편 2021년에 이어 2022년 11월에도 유네스코와 함께 ‘제3회 국제학술포럼’을 개최(11.3.~4.)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 2] 종교 및 학술·문화예술 교류

종교, 학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군사도발에 나서면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종교 분야에서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우리 종교단체 및 종단들이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북한의 종교단체들과 서신 교환 등의 대화 노력을 이어갔으나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또한 학술·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북한측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교류가 재개되지 못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각계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하는 한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기마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며, 북한의 태도변화 촉구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교류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 3] 남북 체육교류

체육 분야에서도 북한이 코로나19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 남북한 체육교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2021년 9월 북한은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불참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제재조치를 받은

가운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2.4.~20.)도 최종 불참하였다.

2022년 하반기에 예정이었던 「제31회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개 대회도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국제체육대회를 계기로 한 남북 간 체육교류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IOC의 자격정지 제재 조치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 2023년 개최 예정인 다양한 국제체육대회를 통해 남북 간 체육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 ④ 남북 사회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사회문화교류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민간은 정책제안을 하는 민관 상호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민관정책협의기구 성격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2022년에는 3개 플랫폼(문화예술, 종단, 시민사회단체)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7회, 종단 4회, 시민사회단체 5회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말(11.30.~12.2.)에는 통합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문화교류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11.30.~12.2.)

### 1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 마련 및 전문역량 축적

역대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환경공동체 건설,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를 통해 기후 환경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을 ‘이어달리기’ 맥락에서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안보적 측면과 북한 주민의 민생개선 측면까지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두 번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 로드맵과 다양한 협력 시나리오, DMZ 그린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산림청과 공동으로 두 차례(6월, 11월)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심포지엄(6.28.)



기후변화 공동대응 심포지엄(11.4.)

또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기존의 대북 개발지원 협력 사업들을 기후변화 대응 차원과 연계시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민협과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교육 내용, 강사진 구성 등 교육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의하면서 만들었으며, 강의식 수업과 현장 견학으로 교육을 진행(7.13.~15.)하였다.

## 2)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 및 공론화

정부는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등 국내 소재 국제 NG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 등 제3국 기반 국제 NGO 등과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환경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7 한국홍보관 사이드 이벤트(11.16.)



COP27 공식 사이드 이벤트(11.17.)

(COP27)에 참석하여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과 세미나 및 협의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홍보하고 협력 의지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한라대학교 등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여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였다. 11월에는 ‘DMZ 국제청년포럼’에서 청년 세대들에게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2월에는 청년층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공론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해당 포럼들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실시간 유튜브 방송과 통일부 방송국(UniTV)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포럼(12.1.)



남북 그린데탕트 전문가 포럼(12.7.)

### 3]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담대한 구상」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세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산림 분야는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상·하반기(4월, 9월)에 산림협력연구 TF를



개최하고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였다. 산림 분야는 2018년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 분야인 만큼 정례적인 협의회뿐 아니라 심포지엄과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영주 산림약용자원연구소(5.26.~27.), 양구 자생식물원 (6.29.), 충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8.30.) 방문을 통해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농업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수차례 실시하고, 김제와 제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하였다.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과 식수·위생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수자원 분야는 접경 지역 내 홍수와 댐 방류계획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유 받는 등 협력을 강화하였다.

통일부는 각 분야별 협의 외에도 산림·농업·환경 분야의 관계자를 총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통합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우선 북한 황강댐 물 방류 관련 공유하천 관리를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외에도 접경지역 지자체, 산림청, 국방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월에는 경기도 연천군 등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기관별 의견 청취와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공유하천 공동관리 협의회 현장 방문(10.27, 연천)



남북 그린데탕트 유관기관 워크숍(12.8.~9, 제주)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10여 개 기관과 ‘남북 그린데탕트 유관기관 워크숍’(12.8.~9.)을 개최하고, 제주 에너지공사 에너지미래관과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4) DMZ 그린평화지대화 추구

‘DMZ 그린평화지대화’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포함한 남북접경지대를 다방면의 발전적 협력을 통해 확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남북접경지대는 산과 하천, 공기 등 자연을 공유하는 특성상 수자원, 산림, 전염병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접경지대에 적합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는 곳이다.

통일부는 남북한의 합의이행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도 DMZ 등 접경지대의 특성과 가치를 감안한 국내 기반 마련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DMZ 일원의 체험 활성화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접경지대가 지닌 안보와 평화적 가치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1) DMZ 실태조사 추진

정부는 DMZ 그린평화지대화 실현과 산림생태계 현황 파악, 생태계 모니터링 기초자료 확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목적으로 DMZ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2022년에는 통일부는 산림청, 환경부와 함께 DMZ 일원의 우리 측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총 17회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DMZ 출입을 비롯하여 정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엔사와 수시로 협의하며 사업을 지원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DMZ의 문화재, 산림 및 생태계 등 주요 결과를 DMZ 통합시스템 내의 'DMZ 실태조사' 메뉴에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통일부는 DMZ 일원 사라진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6·25전쟁 전까지 주민들에게 일상의 공간이었던 비무장지대 내 마을 일부를 선정하여 문헌 및 구술, 현지조사 등을 통해 책자와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 주요 내용을 메타버스로 구축하였다. DMZ 내 약 400여 개의 마을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연천(7.20.), 양구(9.7.), 고성(9.28.), 철원(10.17.~18.) 내 마을을 선정하여 총 5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 24명을 면담하여 지역에 대한 기억을 모았으며, 현지 방문을 통해 마을 흔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내용을 종합하여 5개 마을을 온라인 공간에 3D로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해당 마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DMZ 사라진 마을 실태조사(7.20, 연천)



양구군 수입면 문등리 일원 메타버스 테마공간

## (2) 민간-지자체 협업으로 DMZ 연계 체험프로그램 지원 및 인프라 정비

정부는 DMZ를 직접 체험하여 안보와 평화의 가치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19년 이래 DMZ 일부 구간을 'DMZ 평화의 길'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 또한 DMZ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강원도 고성군과 철원군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의 도로 정비를 2022년 6월 완료하였고, 철원 구간에서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마교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였다. 2022년 개방한 구간에는 기존 개방구간인 파주, 철원, 고성 ‘평화의 길’과 함께 DMZ 외곽지역에 조성한 강화, 김포, 고양, 연천, 화천, 양구, 인제 ‘평화의 길’ 구간이 포함되어 6,574명이 방문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 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 DMZ 통일걷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의 행사를 실시하여 251명이 참가하였다.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파주까지 12박 13일 동안 걷는 동서횡단 구간을 3회, 강원도 고성부터 양구까지 3박4일 동안 걷는 강원 구간과 경기도 연천부터 파주까지 3박4일 동안 걷는 경기 구간은 각 1회씩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접경지역 체험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강원도 5개 지방자치단체(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숙소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는 1953년 6·25전쟁 당시 국군과 중공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철의 삼각지’ 전투 현장으로, 분단의 상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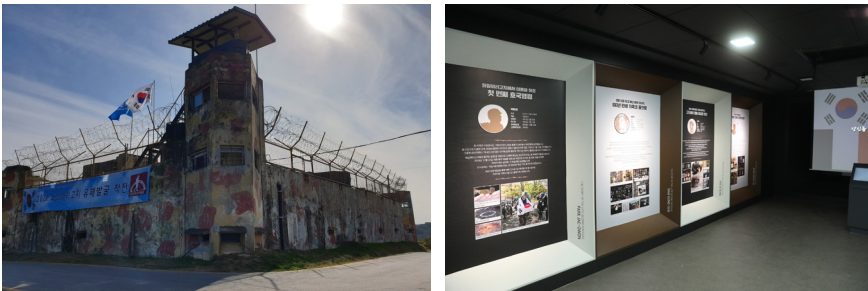


2022 DMZ 통일걷기 발대식(7.25, 금강산전망대)



2022 DMZ 통일걷기 진행(10.6, 파주)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발굴은 2019년부터 우리 측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는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의 평화적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철원군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하여 현장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철원 평화의 길에 소재한 현장 기념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조성된 전시 공간과 추모 공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화살머리고지 현장 기념관 외관 및 내부

### (3) DMZ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DMZ 통합시스템은 DMZ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평화적 이용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통일부는 2022년 3월 중앙부처 최초로 'DMZ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DMZ 접근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DMZ 유니버스' 누리집(www.universe.go.kr)에서는 DMZ의 기초자료와 남북 접경지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웹 기반의 '평화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걷기 행사 모습, 'DMZ 국제포럼' 영상, 통일부 및 관계기관의 DMZ 실태조사 결과 등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적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을 온라인으로 묶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DMZ 출입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DMZ 출입시스템’(dmz.universe.go.kr)을 개발하고 우선 공공분야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DMZ 유니버스 초기화면



평화지도 초기화면



DMZ 출입시스템 초기화면

#### (4) DMZ-접경협력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정부는 2018년 이래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 파주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DMZ 그린평화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그린데탕트 구현’이라는 주제로 ‘DMZ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국제포럼은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발제 등 총 3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남북 그린데탕트 및 DMZ 그린평화지대화의 비전과 의미’, ‘DMZ 그린평화지대화에서 남북 그린데탕트로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포럼 개최 이후 처음으로 국내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청년포럼을 별도로 개최하였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DMZ 접경지역 현장탐방 행사를 포함한 국제포럼을 1박2일간 진행하였다.

청년포럼은 국제포럼과 현장탐방 행사 이전인 11월 15일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DMZ 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청년층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본 DMZ 그린평화지대화’라는 주제로 DMZ에

대한 청년세대의 시각과 관점을 공유하며, 향후 DMZ 평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였다.



2022 DMZ 그린평화지대화 국제포럼(11.15, 20.~21.)

한편 정부는 한강하구 등 남북 접경해역에서의 평화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남북 접경해역 그린데탕트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11.18.)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해양·생태 환경 분야 연구기관과 국내외 국제기구 전문가 20여 명이 참가하여 한강하구의 수로 및 환경조사 결과, 람사르습지 남북 공동등재 전망, 그린데탕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남북 접경해역 그린데탕트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11.18.)

## 1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주요 경협사업 관리

### (1)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추진

정부는 국정과제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추진'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그 진전 단계에 상응하는 호혜적 남북경협과 지원을 통해 남과 북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동시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관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상응한 남북 경제협력 추진 계획으로서 인프라 협력, 경제 발전, 민생 개선, 기술·제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비전 및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대북제재 세미나(10.28, 서울)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12.16, 서울)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022년 10월 28일에는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과 대북제재 세미나’를, 12월 16일에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산업·인프라·그린데탕트 등 분야별 추진과제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논의하였다.

## (2) 금강산·개성공단 우리 재산권 침해 대응

북한은 2022년 3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 등 동 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통일부 입장 발표(4.8, 7.11.) 등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로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 철거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 없이 무단 철거를 지속 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2년 4월 21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북한에 공단 시설 사용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2022년 7월 3일에는 조선중앙TV에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이 개성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화면이 보도되었고 이에 정부는 7월 11일 통일부 입장을 통해 이러한 재산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 (3) 주요 당국 간 협력사업 관리

정부는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이행하였다. 정부는 2022년 1월 5일 우리 측 동해선 중 단절구간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총 111.7km)에 대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한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경원선 철도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은 2022년 현재 대상 토지 수용 및 현장 관리 등 최소한의 사업 유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등 제반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사 재개 시기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 비핵화 등 여건 조성 시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측 철도·도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철도·도로 기관별 협력사업의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등도 진행하였다.

향후 남북 자원협력 추진에 대비해 북한자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북한 지하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북한지하자원넷(irenk.net)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동 협회는 2022년 11월 8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4) 민간경협 추진기반 유지

코로나19로 북한 및 북한 접경지역의 봉쇄상황이 이어지면서 2022년에도 민간 차원의 경협·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경협 추진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민간경협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다. 민간경협·교역의 주체인 기업·단체와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와 경협 중단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을 위한 지원조치를 시행하였다. 2022년 2월에는 남북협력

기금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및 기업운영관리 경비 지원을 결정하고, 6월까지 특별대출 37개 사 대상 92억 원, 기업운영관리 경비 270개 사 대상 65억 원 등 총 157억 원을 집행하였다.

## ②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 (1)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노력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위헌여부에 관한 2016년 5월 9일자 헌법소원심판 청구(2016헌마364)를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 및 일련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업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상당부분 지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였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계속 지원하였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세제·고용 안정 등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다. 2022년에도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 조치,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갔다. 통일부는 남북협력자금 특별대출과 관련하여 2021년에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한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후 실태조사를 통해 7,861억 원의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경험보험 제도 등을 근간으로 2016년 5,131억 원, 2017년 648억 원을 지원하고, 총 728억 원의 특별대출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경영난과 생계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2년 2월 10일 교추협 의결을 거쳐 특별대출,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투자자산 피해 지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국회 및 언론에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기업별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특별대출을 실시하고, 특별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기업운영관리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경험보험 계약한도를 초과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투자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부 추가 피해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특별대출 41개 사 대상 152억 원, 기업운영관리경비 124개 사 대상 30억 원,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 13개 사 대상 85억 원 등 총 267억 원을 집행하였다.

## (2) 개성공단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형·맞춤형 사업과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하였다. 대학, 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기술·제품 연구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형 도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2년에 4개 사를 최종 선정하여 6개월간 사업비 총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장방문 및 점검, 외부 평가회의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홍보·마케팅·컨설팅 등 기업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맞춤형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2022년 41개 사를 대상으로 총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의 특별판매전(메가쇼, 하노이 종합박람회, 파주장단콩 축제, 국회 상품전시회 등), 구매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자사의 우수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기회를 확보 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기업들과의 상시적 소통 창구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담 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에는 정책 자금, 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총 35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2월 14일 기업 추가지원을 위한 대면 설명회를 입주기업·영업기업 등 대상별로 3회 실시하고, 이후 별도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총 469건의 기업 민원을 상담하였다.

### (3) 개성공단 기업과의 소통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춘 개성공단 재개 준비와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등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기업들과 소통하며 협력해 왔다. 2022년 8월 31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기업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면담을 하였다. 개성공단 기업 측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과 관련한 자산 점검 방북,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기업의



통일부장관,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일행 면담(8.31.)

우려에 공감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간의 정례 간담회 및 실무협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소통을 긴밀히 지속해 나갔다.

한편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개 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하였다.

#### (4) 민관협력 체계 유지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개성공단 재평가 및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2022년에도 4회에 걸쳐 개성공단 법률자문단 회의(서면2회, 대면2회)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연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단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함께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성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6.22.~25.)를 개최하고, 기성 플랫폼(ZEP) 내에 개성공단 메타버스를 시범 구현하였다.

정부는 기업인과 청년층 및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전국의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초·중·고·대학)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131회에 걸쳐 6,112명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남북경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경제인과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경협 리더스과정을 운영하여 총 4개 과정에 147명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비 남북경협인의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 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남북통합경협 공유 청년네트워크과정과 개성공단 남북통합경협 강사 양성과정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04

##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제1절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진

제2절 | 남북회담 재개 대비 및 회담역량 강화

UNIFICATION WHITE PAPER







##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정부는 2019년 이후 장기간 중단되어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표명하였으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 비핵화 및 남북 대화에 대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2021년 10월에 복원된 남북연락채널을 통해 2022년에도 정례적으로 소통·연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 상황에 대비하여 분야별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실제 남북 간 회담 상황을 가정한 분야별 남북모의회담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비대면 남북영상회의의 시스템도 현실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협상연구포럼’ 개최와 전문가 수시 자문을 통해 대북 협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도 추진하였다.

아울러 남북회담 사료를 최초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재외동포 대상 남북대화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일문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문점 견학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 ①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노력

정부는 장기간 남북관계 경색 상황 속에서도 대화에 열린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1.1.)에서 남북이 다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제103주년 3·1절 기념사(3.1.)에서도 대화 재개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대외 공개함(5.12.)에 따라, 정부는 보건·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에 제안(5.16.)하면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진단물자 그리고 우리 방역 경험 등을 북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8.15.) 경축사 등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든 남북 간



코로나 방역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5.16.) 관련 브리핑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회담 제안(9.8.)

대화에 대해 열려있으며, 어떤 주제라도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또한 9월에는 이산가족 고령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면적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 등 신속하고 근본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제안(9.8.)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통지문 조차 수령을 거부하는 등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

## 2] 남북 연락채널의 상시적 운영

2021년 10월 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채널이 복원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 직통 전화를 통한 정례적인 소통·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 측과 매일 유선 정례협의(09시 개시, 17시 마감) 466회, 유선 별도협의 7회를 진행하는 등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금강산지역 우리 측 시설 철거, 개성공단 가동 징후 확인, 우리의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과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안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모든 대북통지문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우리 국회 요청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과 국회의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12.21.)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하였다.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장기·미래지향적 형태의 연락·협의기구 모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락사무소 업무 홍보와 대내외 공감대 구축을 위해 지자체·민간단체·유관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노력도 전개하였다. 시도지사협의회, 강원도·인천시·파주시 등 지자체 및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민간 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9.14.) 4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남북 연락채널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9.16.)를 개최하였다.

### ① 남북회담 역량 강화

정부는 남북대화 중단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할 시 언제 어디서나 남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회담역량 유지·발전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 회담 상황을 가정하여 정치·경제·인도 등 분야별 남북모의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함으로써 회담 의제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절차도 점검하였다.

또한 남북회담 전략 수립과 회담대표단의 협상능력 강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남북회담 원로들로 구성된 비상임자문위원회를 남북회담 전략 자문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회담본부 직원들의 대북협상 능력과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상연구포럼’을 총 11회 개최하여 회담 재개를 대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였다.



모의 남북적십자회담(6.23.)



모의 남북고위급회담(9.28.)

## 2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보완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올 경우 어떤 상황,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 및 비대면 회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남북 간 비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비하여 2021년에 구축한 남북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2022년 1월 모의 남북영상회담을 실시하였으며, 남북 간 합의서 교환 시 비대면 방식의 문서 전송 방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회담 개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한편 남북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제로 대면 회담을 개최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대면회담’ 운영 방안도 수립하였다. 이후 판문점 자유의집(6월)과 평화의집(11월)에서 ‘안심대면회담’ 모의훈련을 2차례 실시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도 점검하였다.



모의 남북영상회담(1.20.) \*남북영상회담 프로토콜 점검 모의 남북농업협력분과회담(11.24.) \*안심대면회담 방식

## 3 남북대화 대국민 소통 강화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한 남북 간 문제 해결 원칙을 홍보하고 그간의 남북회담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날, 통일의 길을 닦다, 오늘, 통일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학술회의를 개최(7.4.)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대회를 실시(9.17.)하였다.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대회에는 대학생 총 28개 팀이 참가하여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정치·군사, 경제, 인도·사회 분야 회담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경쟁을 펼쳤다.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기념식·학술회의(7.4.)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대회(9.17.)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회담 사료를 2022년 5월 4일 최초로 시범 공개하였다. 12월 30일부터는 1970년대에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 사료를 본격 공개(총 4,680쪽)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회담사료 열람실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 3곳에 마련하였으며, 북한 관련



프랑크푸르트 교민 대상 남북대화 설명회(11.8.)



연구자, 교수, 대학원생 등이 공개된 남북회담 사료를 직접 열람하였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민을 대상으로 남북대화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 4 판문점 견학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판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과 주한미군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판문점 일반견학이 중단(1.19.~7.11.) 되기도 하였으나, 정상운영에 대비하며 견학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견학 구간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및 정부부처,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실시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7월 12일부터 판문점 일반견학을 재개하였으며, 판문점 특별견학 운영 횟수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판문점 견학은 매주(화, 수, 금, 토) 4일 진행되었으며, 1회당 40명씩 총 3회(일반 1회, 특별 2회) 운영하였다. 견학 대상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셔틀버스(문산역↔임진각 견학안내소) 정기 운행, 견학지원센터 누리집 개편, 임진각 견학안내소 주변 안내판 설치 등 견학 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2년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통해 총 137회 3,649명이 판문점을 견학하였다. 2021년 대비 견학 횟수는 22회(약 18%), 인원은 1,664명(약 83%)이 증가하였다. 판문점 견학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96%(2021년 95.6%), ‘판문점 견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8.5%(2021년 96.9%)로, 2021년에 비해 판문점

견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판문점 견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견학 규모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협력 유관기관 특별견학(8.20, 자유의집)



통일연구 유관단체 특별견학(10.28, 임진각 안내소)



일반견학(11.4, 자유의집)



일반견학(12.9, 군정위원회의실 앞)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1절 |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제2절 |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체계 구축

제3절 |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

제4절 | 북한이탈주민 사각지대 최소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 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여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2022년)을 수립·추진하여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2023년 부터 지급)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및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규」 제정을 통해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 제·개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는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계·심신건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신설(2022년 2월)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등 더욱 밀착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감소로 인해 하나원 입소인원 감소 추세가 2022년에도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하나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료 교육생 대상 교육 및 서비스 확대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

###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국내입국

### 조사 및 임시 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 조치 실시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

###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약」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및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 민간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86명(정원기준)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2022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7명으로 2021년 63명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입국인원 추세가 유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등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누적인원은 총 3만 3,882명이며, 이 중 여성 입국자는 2만 4,372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72% 수준이다. 연령 별로는 입국 당시 30대가 28.7%(9,719명)로 가장 높으며 20~30대가 전체의 57.1%(19,320명)를 차지한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부양자가 44.8%(15,170명), 노동자가 39.6%(13,399명)로 2개의 직업군이 전체의 84.4%(28,569명)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중·고등학교 학력이 69.4%(23,471명)로 가장 높고, 전문대 10.5%(3,537명), 대학 이상 6.9%(2,343명)이다.

출신지역은 함경북도 58.7%(19,852명), 양강도 17.8%(6,013명), 함경남도 8.5%(2,883명) 순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 비율이 높다.(부록 II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참조)

#### 최근 10년간(2013~202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여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합계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여성비율	76%	78%	80%	79%	83%	85%	81%	69%	37%	48%

###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감소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를 수료한 북한이탈주민도 2022년에 50명으로 감소하였다.

#### 2022년도 수료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료
수료	1	1	8	5	3	1	8	2	1	3	4	13	50
남	1	1	5	4	2	0	2	0	0	1	0	10	26
여	0	0	3	1	1	1	6	2	1	2	4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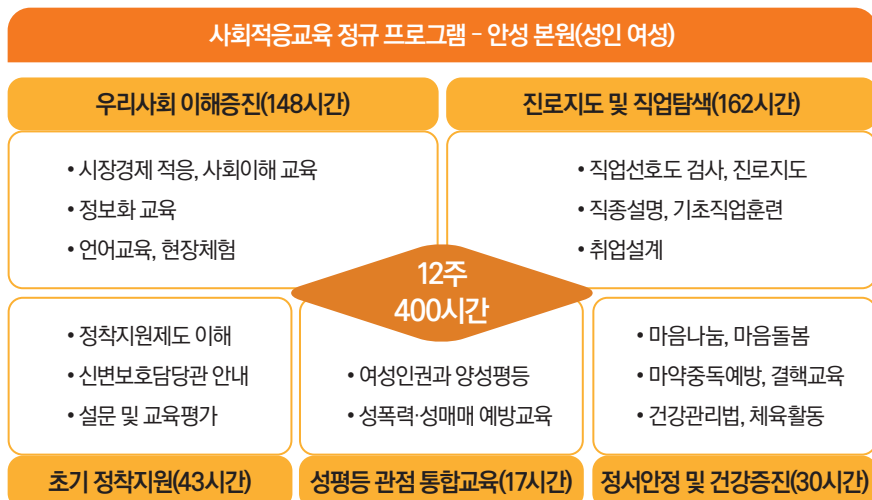
정부는 하나원 정책자문단 등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하나원 교육생과 수료 북한이탈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2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채움」 교육, 진로·직업 전문교육을 통한 「세움」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소통·

관계형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키움」 교육 등을 2022년 사회적응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개편된 기본계획에 따라 5개 영역, 12주 400시간으로 기초교육생 사회적응 교육을 편성·운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의 5개 영역은 ① 우리사회 이해증진 교육 ②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③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교육 ④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교육 ⑤ 초기 정착지원 안내 교육이며,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본원, 강원도 화천에 분소를 두고 있다. 하나원은 나이에 따라 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 성인반, 경로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성인반은 남녀를 분리하여 여성 성인반은 안성 본원에서, 남성 성인반은 화천 분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여성 성인반과 남성 성인반은 기본교육의 5개 영역은 동일하나, 직업훈련 과목, 성평등 관점 통합교육의 세부과목 등에서는 교육내용에 남녀 차이를 반영하였다.



※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72시간) : 언어, 운전, 컴퓨터, 공예교실, 부모교육 등

## (2) 우리 사회 이해 교육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애로 해소 차원에서 ‘우리 사회 이해’ 분야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정보와 민원현장 이해」 과목을 신설하여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였고, 기존 취업 지원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개편하여 우리 사회 이해 분야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 중점과 강의기법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식 발음과 억양을 남한 사회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언어적응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따라 언어교육을 ‘언어적응의 기본, 어휘·표현학습’, ‘남한 사람과 호흡하기, 표준화법 연습’, ‘사회진출의 장애 극복, 발음·억양교정’으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지역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북한식 말하기, 북한식 발음과 억양 다듬기를 희망하는 탈북 교육생을 위해 「우리말상담실」과 「우리말 어학실」을 이용하여 1:1 언어코칭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2022 찾아가는 우리말교실」을 기획하고 통일전담교육사(8.10.~11.)와 직장인·대학원생(10.30.~11.4.)을 대상으로 ‘어문규정의 이해’를, 탈북 성인을 대상으로 ‘2주 완성, 사투리에서 벗어나기’(3개 반, 5월~7월)를 각각 운영하였다.

## (3) 진로지도 및 심화 직업훈련과정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원 내에 직업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관 개관(2020.6.24.) 이후 기초교육생과 하나원 수료 교육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 취득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 직업교육」,

## 2022년도 심화 직업훈련 운영 실적

(단위: 명)

교육과정	운영일정	참여인원	수료인원	자격증 취득인원
피부미용(실기)	2022.02.08~03.12(5주)	7	7	7
요양보호사	2022.03.23~05.13(9주)	6	5	5
ITQ(한글)	2022.05.09~06.10(5주)	5	4	4
한식조리	2022.05.23~07.22(9주)	9	6	6
피부미용(실기)	2022.08.10~09.06(5주)	6	6	6
요양보호사	2022.09.13~11.04(8주)	7	7	7
피부미용(실무)	2022.11.07~11.24(3주)	7	7	-
ITQ(한글)	2022.11.07~12.09(5주)	9	7	5
<b>계</b>		<b>56</b>	<b>49</b>	<b>40</b>



피부미용 과정(2.8.~3.12.)



한식조리사 과정(5.23.~7.22.)



요양보호사 과정(9.13.~11.4.)



ITQ(한글) 과정(11.7.~12.9.)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6장

제7장

부록

「진로상담」, 「직종설명」, 「기초직업훈련(자격증반, 직종체험반)」, 「취업설계(생애설계)」 과정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과 직장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요가 있고 취업이 용이한 한식조리, 피부미용, 네일아트, 요양보호사, ITQ(한글) 등 8개의 심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동 과정에 총 56명이 참여, 이 중 42명이 시험에 응시하였고, 40명(95.2%)이 해당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업역량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훈련 강사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심화 직업훈련과정」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수료생 참여율 제고방안, 교육과정 개설, 자격취득자 취업연계 방안 등 심화 직업훈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직업교육관 개관 이후 하나원 심화 교육훈련과정 수료생 54명(2020년 6월~2022년 5월)을 대상으로 취업현황 및 하나원 훈련과정의 취업 연관성, 정착실태 등에 대해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취업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업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탈북민 장기근속 요인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탈북민이 동일 사업장에 3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4) 하나둘학교 운영

하나원 내의 하나둘학교에서는 24세 이하의 탈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치·초등반과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파견 교사가 학생의 연령 및 학력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초등반은 인근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원내에서도 보충수업을 받는다. 청소년반은 연령과 학력에 맞춘 교육과



진로·진학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수료한 탈북 학생들도 방학에는 하나원에서 대면으로, 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학력보충 특별반」에 참여하여 기초학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2022년 24명의 학생이 「학력보충 특별반」에 참여하였다.

한편 하나원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교사들은 ‘하나교사’로 위촉되어 탈북 학생의 정착지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생활상담, 학습·진로지도 등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협의체(탈북학생 교육협의체)에도 참여하여 탈북학생의 학교적응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치·초등반의 학업환경을 개선하였다. 숫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교 3년 이상 학생을 위한 『수학 연산영역 보충교재』를 발간하고, 탈북 유아의 유치원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탈북유아 생활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탈북학생 감상문과 지도 교사의 소회를 담은 『먼저 온 미래, 하나둘학교 아이들』을 발간하였으며, 탈북 학생 교육 관련 교사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둘학교 교육포럼’을 3회(4.19, 7.21, 10.13.) 개최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탈북 영유아가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탈북 여성 고충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놀이재료와 활용법을 함께 담은 「그림책 꾸러미」를 제작하여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배부함으로써 영아의 언어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돌봄 지원을 제공하였다.

## 2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 (1) 하나의원 운영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3명의 의료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성 본원은 가정의학과·치과·한방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을, 화천 분소는 내과·치과·한방과·정신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하나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입소 교육생 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개인별 인바디 검사(InBody,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체중, 비만도, 골격근량,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 기본검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식습관 관리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였다.

수료생 대상 건강지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건강관리 대상자는 수료 후 1년 동안 하나의원 의료진이 매월 정기적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016~2020년 하나원 입소기간 중 결핵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결핵 재발 유무, 건강관리 실태조사도 실시하였다. 사회 정착 초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 하나센터 및 협력병원과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등 10개 의료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총 283명을 검진하였다. 하나의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검진팀이 기초검사, 구강검진, 보건교육 등 신청자들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 및 이해증진을 위해 민관의료협력 사업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하나원-고양시-국립암센터 간 남북

보건의료협력 증진 협약 체결(3.28),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생 대상 하나의원 실습교육(7.4.~7.), 하나의원 의료협약체결 기관 35개 대상 의료협약 이행실태 점검(6.1.~20.) 등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건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리플렛 6종(고혈압, 당뇨, 간질환, 위장질환, 비만관리, 올바른 약품 사용법)을 개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원-고양시-국립암센터  
남북보건의료협약(3.28.)



제3차 찾아가는 건강검진(7.16.)



건강정보 리플렛 6종(11.30.)

## (2) 마음건강센터 운영

하나원의 마음건강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신과 진료 및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교육생에게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검사(MHI-NKR)와 개별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시작되며, 이를 통해 하나원 입소 초기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생들이 하나원 생활 중 심리적 고충을 해결하면서 하나원의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스스로 마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마음관리법을 소개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25개 지역사회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도 협력하고 있다.



「여성 탈북민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활동지

하나원 입소 교육생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이외에 2022년 마음건강 센터는 3가지 사업을 증점적으로 추진 하였다.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여성 탈북민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살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였다. 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남북 하나재단이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강사 양성 교육(6.1.)과 보수교육(12.16.)을 실시하였다. 2020년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한 이후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직원 총 55명이 강사 양성 교육을 수료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마음명상프로그램’은 대한명상학회와 협업을 통해 하나원 수료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나원 본원에서 진행한 1일 프로그램으로서, 2022년 총 6회를 진행 하였고, 4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다.

### ③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 (1) 남성 성인반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하나원 화천 분소에서는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천 분소는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으며, 2022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아 12월 5일에 ‘제2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제2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12.5)

화천 분소 교육과정과 시간 등 기본적인 틀은 안성 본원과 동일하게 하되, ‘폭력예방 프로그램’과 ‘자동차 운전 및 증장비 원내 실습’ 등 성인 남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화천 분소에서는 2020년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북한 생활법률』 교재를 발간하였고, 2021년에는 더 이해하기 쉽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로 다시 발간한 바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2020년 원내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이후 1차 기능시험 합격률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97% 이상의 교육생들이 수료 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있다. 굴삭기·지게차 등 원내 증장비 실습 교육 역시 교육생들의 몰입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과정이다.

한편 화천 분소는 ‘탈북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힐링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정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탈북민의 심리·정서안정과 가족관계 회복 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로서, 참여자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2년에 총 9회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총 175명의 탈북민이 참여하였다.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12.8.)



고령자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11.13.)

## (2) 정착지원 관계자 직무교육

하나원 화천 분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탈북학생 지도교사,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담당관 등 5개의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교육생 수강 편의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정 운영 횟수를 10회로 확대하였으며, 189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9월 이후 집합 대면교육으로 운영하였다.

## 2022년 제2하나원 직무교육 운영 실적

과정명	기간		비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1기	3.15.~17.	온라인 2일, 현장견학 1일
	2기	6.22.~24.	
	3기	12.13.~16.	집합교육
탈북학생 지도교사	1기	1.18.~20.	온라인 2일, 현장견학 1일
	2기	8.24.~26.	
	3기	8.29.~31.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담당관	1기	9.5.	집합교육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협의회	1기	5.25.~27.	온라인 2일, 현장견학 1일
지자체 공무원	1기	4.26.~28.	온라인 2일, 현장견학 1일
	2기	7.27.~29.	

### 4 북한이탈주민 이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 (1) 하나원 방문 및 초청교육

하나원은 국내외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과 하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2020년부터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외부방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22년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합하여 총 27개 기관에서 470명이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의회 의원 보좌관 등 6개 기관이, 국내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지역 하나센터,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등 21개 기관이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한편 하나원 화천 분소는 2022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탈북민 인식 개선 초청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7.7.~8.)는 경인통일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아주대학교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차(8.10.~11.)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등 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1박 체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하나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탈북민과의 대화, 인식개선 강의 등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문(8.30.)



서울북부하나센터 방문(10.20.)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방문(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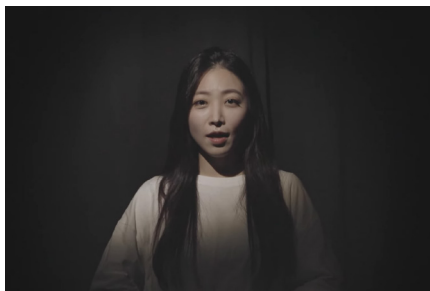
인식개선 교육(8.10, 이화여대)

## (2)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은 인도적 차원이나 통일준비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토대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제1회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22년 9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단편영화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44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통일부 Uni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대상 : 「북에서 왔어요」



금상 : 「애프터 코리아」



은상 : 「딱동무」



동상 : 「어쩌다 사장」

## 5 북한이탈주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 개최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양한 정착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친정집 같은 곳이다. 하나원에서는 수료한 교육생들의 정착 노력을 격려하고 친정집 같은 하나원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하나원 방문의 날’을 해마다 개최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3년간 중단되었던 이 행사를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로 명명하여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초청대상을 하나원 수료생 본인만 한정하여 비공개로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공개초청’ 및 ‘가족동반’으로 확대 전환하였다. 또한 내용도 기념식 행사 위주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술공연, 고향음식 시식, 직업체험, 힐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박람회 형식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희망자는 하나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료생 및 가족들과 외부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550여 명이 참석한 2022년 행사는 사전 접수 3일 만에 예상 인원을 초과하여 조기 마감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하나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하나로 예술공연(12.10.)



명랑운동회(12.11.)

## 6]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 (1) 가족관계 등록 및 주거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세대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2021년 10월 21일)을 통해 형제, 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희망하는 거주지에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원활하게 주택을 배정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 정착금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비롯한 각종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착지원금은 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가산금, 안정적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정착금 중 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하나원 수료 시점에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3개월 후부터 3회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잔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을 지급하며,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지원금액도 증가한다. 주거지원금은 주택 임대 to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입주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을 지급하며,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지원금액도 증가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거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거주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정착기본금 인상을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 세대 당 100만 원을 인상하였다.

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령가산금과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은 하나원에서, 그 밖의 가산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정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취업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에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취업 보호기간인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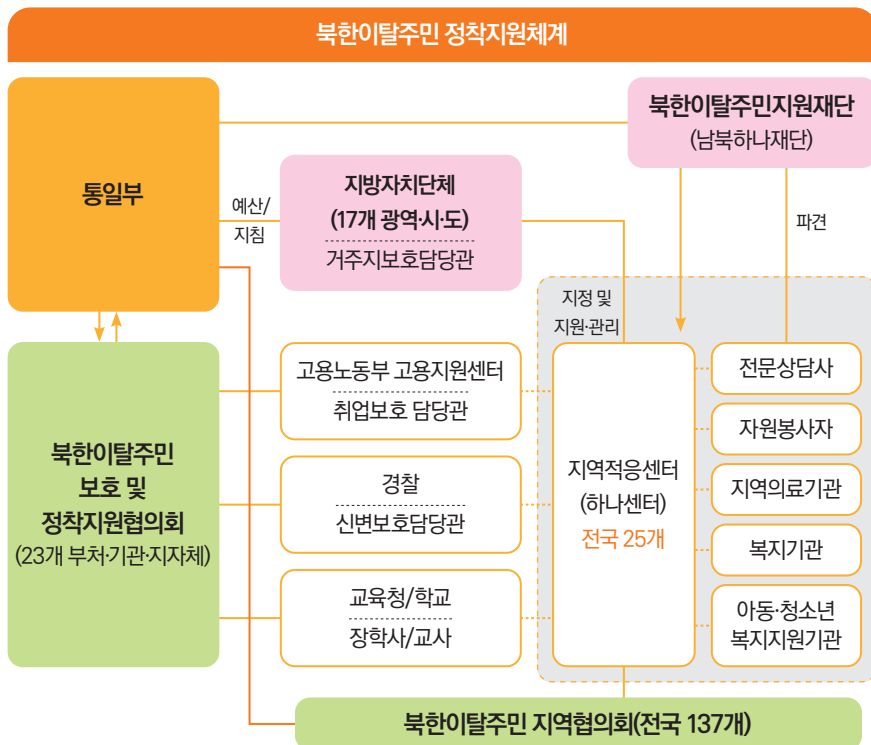
다만 2014년 11월 29일에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어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은 고용지원금과 함께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적용된다.

### 취업장려금 지급기준

구분	동일업체 취업기간	금액(만원)	
		수도권	지방
취업 장려금	6개월	200	250
	1년차	500	600
	2년차	600	700
	3년차	700	800

###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정착지원 제도를 수립·총괄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나센터를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심리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거주자·신변·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무원, 보호담당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 2 자립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핵심은 일자리라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확대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채용기업 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행복통장 운영 등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1) 직업역량 강화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초 및 심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개인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선호도와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회계실무자양성, 무역실무자양성, 전기기능사양성 과정 등 총 7개 취업연계 심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였다.

재북·재남 경력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1인 최대 5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내대학과 협업하여 의사·치과의사 등 국가시험 대비 실기실습도 지속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22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 현황

구 분	취업바우처카드	취업연계 직업훈련	전문직양성과정
직업역량 강화 지원	449명(532과정)	84명(7과정)	50명

이 밖에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탐색 및 직장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수생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연수비를 지원하는 단기연수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148개 기업에 총 163명이 연수를 수료하였고 이 중 162명이 연수기업에 채용되었다.



단기연수 골프캐디 양성과정(11.21.)



의과대 연계 의사국가시험 대비 실습(8.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 구직자 취업 준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청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2) 취업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및 알선,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배치된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일자리 매칭·관리, 사후 관리 등 거주지 중심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 2022년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의 취업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알선	동행면접	취업	전화상담	대면상담
건수	1,710	2,057	1,539	421	1,441	18,168	6,841

출처: 남북하나재단 취업관리시스템

또한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11개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4.5.)하고 모범사업주 4개 기업을 선정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유인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3)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창업 희망자 및 창업 후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창업부터 기술 기반 창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실시하였다. 창업 상담 및 교육, 창업실습, 창업 분야별 1:1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민간단체인 아산나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를 운영하여 글로벌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을 실시하였다. 재정지원(최대 1,500만 원)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음식 경연대회 및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국회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창업자 판로 확대 및 창업역량 개발을 지원하였다.



예비창업자 창업기초 교육(9.14.)



탈북민 요리경연대회(11.5.)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해 영농교육 및 현장실습, 영농운영비 지원, 판로 확보 등 귀농 단계별로 지원해 왔다. 2022년에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기초영농교육을 3개 권역(강원권, 경상권, 전라권)에 걸쳐 실시하였다.



영농정착 성공패키지 농기계실습(3.25.)



지자체 연계 영농교육(11.18.)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성공패키지’(영성패) 사업을 통해 기초이론교육 및 실습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별 선도 농가와 연계해 최대 5개월 간 영농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협조로 영농분야 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및 농촌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작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4) 자산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그 저축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하여 월 최대 50만 원(소득의 30%) 한도로 저축할 경우 이와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총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만기해지자가 2018년 17명에서 2022년 말 기준 1,066명으로 수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수혜자 확대를 위해 2022년 2월 「북한이탈

주민법」 시행령 및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신청자격요건을 확대하고 각종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도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입 기간 연장 사유에 기존의 출산, 병역에 더해 장애 및 학업을 추가하여 중도해지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일시 중지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가입 인원	10	182	380	458	510	559	406	351	2,856
만기지급 인원	-	-	-	17	49	169	398	433	1,066

### 3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통일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개정 및 하위지침 마련, 지원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 (1)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및 학습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2022년(3월) 기준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전국 25개 정규(초·중)학교에 22명의

통일전담교육사를 배치하였다. 통일전담교육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1 상담과 기초학습 등을 지원한다.

정규학교 내의 보살핌 외에 탈북아동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1:1 온라인 화상영어교육과 방문학습지·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통일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 (2) 교육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1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인가(학력 인정) 대안학교(3개교)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7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탈북민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 수업 이후 학업 보충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8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3) 대학 진로·진학 지원 및 통일미래인재 양성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례입학을 할 수 있으며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2001년도부터 학비도 지원(국·공립대 전액 면제, 사립대 50% 지원)받고 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2011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정월 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 및 학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탐색 등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3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전문대학)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탈북학생 재학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 및 시·도교육청, 하나센터 등에 제공하였다.



2023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 전문대학, 입시핸드북)

또한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컴퓨터, 전공 등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등 학교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과 민간단체를 디딤돌(예비) 대학(6개)으로 지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여 탈북대학생의 학업수행능력 향상과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였다. 국내 외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 (4) 무연고 청소년 지원

무연고 청소년은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보호결정을 받을 당시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정부는 무연고



청소년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 제공과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보호지정을 하고 있으며, 남북하나재단과 무연고 청소년 지원 TF를 구성·운영하여 무연고 청소년 생활실태조사(7~10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연고 탈북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11월)을 마련하였다. 또한 무연고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학교와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룹홈 시설(12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 심리 상담, 교육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6.22.)되었다. 이에 따라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를 마련하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연고 청소년이 거주·생활하는 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위탁가정의 부모 등을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민간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 4 남북 주민 간 교류·소통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고, 남북 출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남북생애나눔대화 및 문화소통 프로그램,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주간 운영 등을 통해 남북 주민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남북하나재단에서 개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 사례발표대회, 사회통합주간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 (1) 남북통합문화 공감대 조성

2020년 5월 개관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이 직접 만나고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인 ‘남북 생애나눔대화’ 및 심화프로그램 ‘1박2일 생애나눔대화’를 진행하였으며, 난타·아코디언·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취미교실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총 세 차례의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주간」(제1회 5.9.~14, 제2회 8.29.~9.3, 제3회 11.21.~26.)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들이 남북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1회 확산주간에는 센터 전시관,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북 큐레이션, 스탬프 챌린지, 샌드아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울러 남북예술인, 남북주민이 함께 출연하는 공연 등을 개최하였다. 제2회 확산주간에는 추석맞이 남북주민 어울림 한마당,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임진각 망향제, 탈북가족 공감캠프 등을 진행하였다.



제1회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주간(5.9.~14.)



제2회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주간(8.29.~9.3.)



제3회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주간(11.21.~26.)

제3회 확산주간에는 소통전문 강사의 탈북민 ‘응원 토크콘서트’, 남북문화 예술 공연부터 유명 탈북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북한 음식 먹거리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통합문화 연합공연 등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센터 내 대강당에서 진행되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기획전시관과 통합문화체험관을 운영하여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전시관은 ‘남북 분단의 아픔’, ‘고통 치유의 노력’, ‘북한 이탈주민’, ‘통일미래’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문화 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이산가족의 고향을 체험하고 북한 음식 만들어보기, 평양인민대학습당 앞 광장에서 활쏘기, 서울 경복궁 앞에서 투호놀이 등 남북의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시대 자동차여행 VR



통일도 식후경 요리대전 VR

## (2)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 사례, 선행 사례 등을 발굴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MBC 유튜브 채널(엠뚜루마뚜루)과의 나랏늬 시즌3 브랜드콘텐츠 등 언론매체 및 북한이탈주민 크리에이터 등과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제작하였다.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4개의 누리 소통망(SNS)을 운영하며 온라인 소통을 지속하였다. 또한 정착지원 분야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격월간 소식지인 『동포사랑』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 사례 발표대회(11.15.),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사례의 공유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격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 사례 발표대회(11.15.)



MBC 유튜브채널 '엠뚜루마뚜루' 나랏늬(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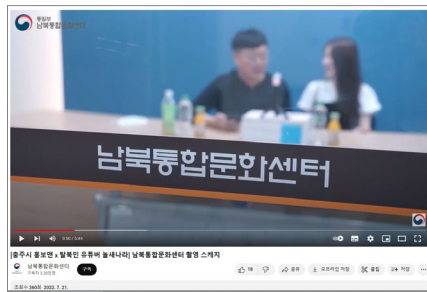
한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통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벽을 넘은 선남 선녀들', 사람을 중심에 둔 통일을 주제로 다룬 '인문학 소통과정', 남북출신 기자의 대담 프로그램 '남북기수다' 등 12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이 함께 캠핑을 하며 남북 음식 문화로 소통하는 '남북요리톡톡', 온라인 지역 알기 '남사친 북사친', 남북 어린이 놀이 문화 '남북 노는 형님' 등

13편의 콘텐츠를 지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제작하여 이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특히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자이언트펭TV(조회수 67만), 충주시 홍보맨(조회수 77만) 등 대중성 있는 크리에이터와 콜라보 영상을 제작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인지도 및 남북통합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 예술인들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주간’(6.7~11.) 개최, 친근한 이웃으로서의 탈북민들을 만날 수 있는 ‘탈북민 노래자랑’(11.12.) 개최 등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문화를 보다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이언트펭TV



충주시 홍보맨



공연주간(6.7~11.)



탈북민 노래자랑(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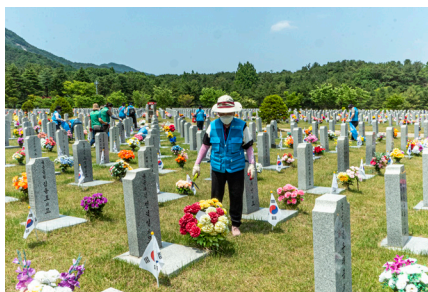
### (3)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2022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주간」 ‘우리가 꿈꾸는 하나’ 행사를 개최(10.28.~29.)하여 남북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착한봉사단’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2022년에 11개 단체로 구성된 제6기 착한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국립현충원 봉사활동(6.11.)을 펼쳤다.



2022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주간 행사(10.28.~29.)



착한봉사단 대전국립현충원 봉사활동(6.11.)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쪽방촌 방한용품·생필품 키트 제작 등 ‘정성나눔 자원봉사’를 7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등 ‘음식나눔 자원봉사’를 7회 진행하였으며, 남북통합 문화센터 ‘대표 봉사단’을 창단·운영하여 통일기원 나무심기봉사 등 8회를 진행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을 촉진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의 남북주민 자원봉사 단체가 한데 모이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9.24.)하여 남북주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자원들을 공유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음식나눔 봉사활동(4.30)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활동(6.4.)



정성나눔 봉사활동(8.13.)



자원봉사 페스티벌(9.24.)



## 1] 위기가구 안전지원 협업체계 구축

### (1)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통한 안전지원 협업체계 구축

그동안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원인과 관련하여 생계·심신건강 등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위기정보들이 통일부를 비롯한 정착지원 유관기관에 분절적으로 산재하여 관리되고 있어 신속한 위기파악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관기관 협업조직인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신설(2022년 2월)하여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전문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신속한 위기징후 공유 및 보고 체계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 위기 징후 포착 체계 확립,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지자체 등 통합 지원 역량 강화 실시 등의 기본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상시 직통 업무전화(010-4548-5701)를 개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지원 관리체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보건복지부와 위기정보 공유를 통해 고위험군 상시 관리체계 구축

통일부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위기정보를 공유 받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 2회 취약계층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동 전수조사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조사와 중복되고,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발굴 및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2022년부터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조사결과를 공유받아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통일부에 연계한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2년간 다수의 위기지표가 중첩되면서 장기간 포착되는 고위험군(1,200명)을 별도로 선별한 후 이들에 대한 안부확인 및 필요지원 연계 등 직접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3)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간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체계 마련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출범 이후 하나센터의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남북하나재단과도 정례회의를 통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포착된 위기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통합사례 이력 관리시스템」을 하나센터와 남북하나재단의 현장 사용자 중심인 「(가칭)북한이탈주민 통합 지원시스템」으로 2023년 말까지 조기 확대·발전 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도 확충하였다.

#### (4)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의 안전지원 책무 강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지역 적응센터 관계자, 지역 내 종교 및 복지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지원기관 관계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과 자립 등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지원 자원 개발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37개의 각급 지자체에 동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효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를 반영하여 지역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동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022년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과 거주지보호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전문 역량과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는 등 동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2]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출범 이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 지원, 자살 및 범죄피해 예방, 수해 피해가구 주거지원, 가정폭력 법률지원, 위기가구 안부확인 등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활밀착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무연고 사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지자체 주관 무연고 장례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가족 없이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고인의 장례에 예우를 갖추고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취업, 생활, 경제 등 분야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상담사가 전화 및 대면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복합적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중앙차원의 솔루션 제공 및 지자체별 사례관리 대상 연계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2023년도 긴급생계비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 및 일생 지급한도액 확대(300만 원 → 500만 원)를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법무부와 협업하여 위촉 변호사제도 및 지원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하였다.

### ③ 하나센터 기반 및 자원인력 역량 강화



하나센터 개소식(4.1, 경남하나센터)



민관합동 사례회의(7.20, 대구하나센터)



하나되는 숲 치유(8.25, 서울북부하나센터)



통일한마음 체육대회(10.22, 인천하나센터)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 집중교육과 지역 적응 및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 집중교육은 8~9일 간 5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진로 및 취업교육, 실생활 및 지역사회 이해,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센터의 초기 집중 교육은 현장체험 중심으로 진행하여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적응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 생계, 의료, 심리·정서, 주민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하나센터는 거주지현장 최일선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고 긴밀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하나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 25개 하나센터(서울 4개, 경기 6개, 강원 2개 외 광역시도별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지역 범위가 넓어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나센터에서는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및 외부의 사이버 위협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하나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

하고 하나센터 종사자들에게 보안 업무폰을 도입하여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센터에는 남북하나재단 소속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어 하나센터 직원(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심리 또는 취업 분야의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80명(심리 46명, 취업 34명)의 전문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업·건강·심리 등 정착생활 전 분야에 걸쳐 상담 등 각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2022년 지역별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단위: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15	3	2	4	2	3	2	2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	3	3	3	2	3	4	2	80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하나센터 역량 강화 사업 일환으로 2023년 예산 편성 시 하나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및 호봉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수행 중인 업무와 일치하는 현장 지향적 하나센터 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였다.



# 06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제1절 |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

제2절 |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제3절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제4절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 강화

UNIFICATION WHITE PAPER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및 통일교육 관련 사업들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실천의지와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의 원내 교육과정과 이러닝 과정 등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대상별로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도서와 함께 방송·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하여 영상 교재도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적 포용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0회 통일교육주간(5.23.~29.)도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 해외 신진학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2030세대들 대상으로는 흥미,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제3기 2030 피우지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통일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23기

통일교육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여 국내외의 지역 사회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 제6중앙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2022년 상반기에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통일 체험연수 시범 연수 실시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황의 정상적 입소형 체험연수 시설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대학생, 유관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 국민들이 참여하는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정상화를 목표로 환경개선, 체험시설 확충, 프로그램 보완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갔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제7장

부록

### 1 통일교육과정 운영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실천의지와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원내 통일교육은 전문과정과 공직자 통일 교육과정, 학교 통일 교육과정, 사회 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 등 5개 단기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공공과정, 교원과정, 시민과정, 2030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40만 6,534명이 참여하였다.

2022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과정 구분	전문 과정	공직자 통일 교육과정	학교 통일 교육과정	사회 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	이러닝 통일 교육과정	합계
인원	295	2,263	769	965	219	266	406,534	411,311

전문과정으로는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 통일미래 기획 과정,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295명을 교육하였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은 사회 저변에 통일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각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범국가적·범정부적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과 4~5급 상당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미래 기획 과정을 운영하였다.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은 통일대비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2030세대 대학(원)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3.8.~5.26.)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  
(2.7.~12.16.)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2.15.~11.10.)

글로벌 교육과정은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국내외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통일공감대와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2013년 개설되었다. 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외의 역량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2년에는 미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4명의 전문가가 국내 전문가 및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34회의 특강과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총 1,351명이 참여하였다.



해외초빙교수 경인통일교육센터 특강(5.9.)



해외초빙교수 충북통일교육센터 특강(8.31.)

정부는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동 아카데미는 2022년에는 메타버스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36개 국가에서 학자, 언론인, 공무원, NGO 활동가 등 64명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주한 외국유학생, 해외 외국대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총 6회의 단기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86명이 참석하였다.



메타버스 속 해외 신진학자 아카데미(5.17.-19.)



베를린자유대 대학생 임진각 현장견학(8.23.)

이러닝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2020년 44만 2,377명, 2021년 44만 6,577명이 이수한데 이어 2022년에도 40만 6,534명이 이수하여 최근 3년간 40만 명 이상의 이수인원을 기록하였다.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품질관리, 모니터링 및 이수자 관리 등 이수인원의 양적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외에도 국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30 과정과 시민과정 전용 콘텐츠를 지속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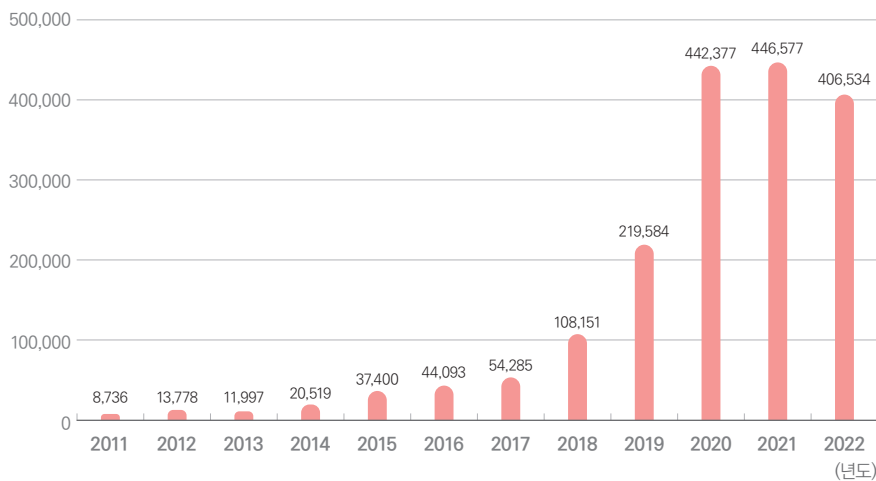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1020 미래세대의 통일 관심 유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2022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였다. ‘통일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에서 사용자는 가상의 통일 한반도를 배경으로 북한 지역의 5개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미션과 이벤트, 미니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반도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역사·문화를 탐방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도별 이러닝 통일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 메타버스 '통일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 주요 화면



첫 시작 화면(서울역)



미션 수행 화면



수집된 아이템



도시 공간의 미니맵(평양)



도시 건물의 전경(개성 만월대)



광물자원 운반 게임 화면

정부는 이러닝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가 만드는 평화통일 콘텐츠 이벤트’, ‘이러닝 통일교육 학습후기 이벤트’ 등 제안·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러닝 제작 및 홍보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모집하여 ‘스마트러닝 서포터즈’를 운영하였다. 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국립통일교육원 개발 콘텐츠 모니터링, 콘텐츠 아이디어 제안, 이러닝 강의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 정책참여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및 각 기관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에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를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및 공공기관 등 157개 기관에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국민들의 통일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및 이러닝과 교육원 기관 홍보를 실시하였다. 교육원의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카카오톡 등 5개 뉴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여 뉴미디어 전용 통일교육 영상 20편, 쌍방향 방식의 콘텐츠 소개, 질문에 대한 답변 성향에 따른 남북 여행지 추천 게임 1종 등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2022년 12월말 기준, 국립통일교육원의 5개 뉴미디어 채널 총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5만 397명이었으며,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 수는 44만 175회를 기록하였다.

##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정부는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의 실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도서·영상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1972년부터 통일문제와 북한의 객관적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오고 있다. 2022년에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를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 대상 일선학교와 대학교, 공공도서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부하여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통일교육을 장려하였다.

2030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통일 인문학 도서(12월) 시리즈와 대북·통일전문가의 통일특강 도서 『MZ세대가 궁금해 하는 통일 이야기』(12월) 등 다양한 도서를 제작하였다. 특히, 『손안의 통일』은 시중 판매용 인문 대중 도서 시리즈로 2019년 첫 발간 이후 매년 5종씩 총 20종이 발간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북한사회·남북관계·통일문제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풀어낸 『청소년 통일사전』(12월)을 발간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이 의미있고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AR기술을 접목시킨 통일교육 교재 『통일봄』(5월)을 제작하여 전국 217개 중학교에 배부하였으며, 『통일봄』은 중학교 도덕과목 통일단원과 연계하여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주간에 일선학교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표준강의안(5월) 등을 개발하였다.

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통일 그림동화 다섯 번째 이야기 『남떡 북떡 쭉떡쭉떡』(5월)과 초등학교 3~4학년용 통일 놀이북 『출발! 통일된 한반도 세계절 탐험대』(12월)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통일 그림동화 『남떡 북떡 쭉떡쭉떡』과 '21년 제작한 『그래! 달라도 괜찮아!』 2권은 사회적 포용 콘텐츠의 일환으로 오디오북 형태로 제작하여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그래! 달라도 괜찮아!』(5월)는 어린이들에게 더 친숙한 전달매체인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하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통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TV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고품질 영상을 제작·방영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tvN 「벌거벗은

세계사」(5.3. 방영)에서는 독일 통일 과정의 쟁점과 교훈을 되짚어 보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계기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지상파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KBS1 「한국인의 밥상」(10.13. 방영)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잔잔하게 담아 시청률 6.1%(99만 가구 시청)를 기록하였다. 한편 전통매체 미디어와의 협업 이외에도 인지도 있는 유튜브 채널과의 협업도 추진했다. 「육식맨」(6월 송출) 북한음식 편 영상은 누적 조회수 40만 회를 기록하였고, 「단앤조엘」(7~8월 송출) 영상은 주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통일이라는 주제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MZ세대를 시청 대상으로 탈북 청소년의 남한 학교생활 적응기를 그린 브랜드드 웹드라마 「무장해제 로맨스」(11월 송출) 영상 총 3편을 제작하여 2달 만에 누적 조회수 195만 회를 기록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및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자연스럽게 친숙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초·중·고 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클립 영상」(3~10분 분량)과 교사용 활용 가이드 자료(PDF)를 개발하였다. 동 자료는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과 유튜브, 교사용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 탑재하여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쉽게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개발 주요 통일교육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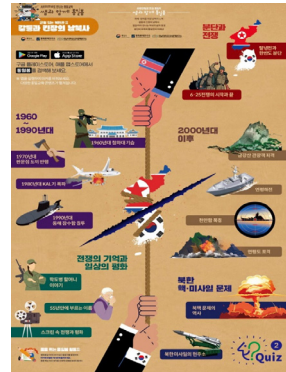


기본교재

통일특강



인문학 시리즈(5종)



AR 교보재 『통일북』



『청소년 통일사전』



통일 놀이북,  
『출발! 통일된 한반도 사계절 탐험대』



통일 그림동화  
『남덕 북덕 쓱덕쓱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제7장

부록

## 영상 콘텐츠



tvN 「별거벗은 세계사」: 독일 통일 편



KBS1 「한국의 밥상」: 영농정착 탈북민 편



유튜브 「육식맨」:  
북한음식 편



유튜브 「단앤조엘」: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 등 2편



웹드라마  
「무장해제 로맨스」

## 2022년 개발 도서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통일에 대한 관점,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과제	대학생, 일반성인 등
	북한 이해	북한 이해의 관점,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대외정책 및 관계, 군사전략과 군사력, 경제 현황, 교육과 문화, 사회와 주민생활	
학교 통일 교육	남떡 북떡 쓱떡쓱떡 (통일 그림동화)	떡을 좋아하는 남쪽 북쪽 동물들이 남북 사이에 있는 '사이 큰 숲'에 모여 정겹게 노래 부르며, 떡을 쿵덕쿵덕 만들고 쓱떡쓱떡 나눠 먹으며 즐기는 과정을 표현한 동화책 (동요 7곡 포함)	유아 초등
	남떡 북떡 쓱떡쓱떡 오디오북	시각장애인을 위한 『남떡 북떡 쓱떡쓱떡』의 오디오북	시각장애인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학교 통일 교육	출발! 통일된 한반도 사계절 탐험대 - 평양에서 1년 살기 (통일 놀이북)	어린이들이 흥미롭고 창의적인 활동·놀이 즐기며 통일· 북한·평화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놀이북	초등학생 (3·4학년)
	AR 통일교육 교재 『통일봄』	AR앱·활동지·4가지 주제(△화해·협력을 위한 남북의 노력 △갈등과 긴장의 남북사 △철길따라 만나는 북녘의 삶과 풍경 △분단의 극복과 통일한국 미래상)의 포스터를 통해 학습자가 사진·영상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 주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학습자료	중학생
	『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들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해 궁금할만한 내용을 사전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집(2018년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의 개정판)	중고등학생
	『2022 통일교육 클럽 영상 활용 가이드』	학교 수업용 ‘교과 연계 클럽 영상’ 18편의 활용을 위한 교사용 안내서	교사
통일 교육 참고 도서	MZ세대가 궁금해 하는 통일 이야기 (통일특강)	학자, 외교관, 전·현직 관료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다각화하고,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특강	대학생, 일반성인 등
	한반도 운영: 두 개의 싱클래리티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운영방식은 필수적. 이를 위해 문명적 혜택을 향유하는 통일이 필요	
	섬으로 간 전쟁, 섬에서 만난 평화	기행·인문·역사를 결합시킨 융합 콘텐츠로서, 평화와 통일의 시각에서 남과 북의 여러 섬에 담긴 이야기기를 미래지향적으로 흥미롭게 소개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감염병을 한반도 차원에서 조명하고,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남북·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감염병 대응 협력사례 소개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장기간의 분단에 따른 남북의 식생활과 음식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단 이전 일제 강점기 북한 음식을 통해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북한의 농인	북한과 남한의 수어의 차이를 소개하고, 북한 농인에 대한 현황과 북한을 방문한 외국 농인의 에피소드를 통해 남북 농인의 교류의 방향과 모습을 제시	



## 2022년 개발 영상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클립 영상	북한의 간식은 어떤 게 있을까? 등 20편	초등교과와 연계된 △북한 학교생활 △분단과 이산가족 △아리랑 △독일 통일 △비무장지대 △북한말 등 5분 내외 영상 및 대학생(성인) 대상 △기후변화 △영화로 보는 통일 등 정보 제공 영상	초·중고 및 성인
애니메이션	통일 그림동화 「그래! 달라도 괜찮아!」	남·북 어린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새롭게 규칙을 만들어가는 내용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유아, 어린이
공공 영상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현 국제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 확보 및 국제 협력 방안, 비핵화 전망 등 논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성인 등
	북한인권	북한인권 현실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및 방향 제시	
유튜브	육식맨 (북한음식편)	북한 지역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육류(토끼고기)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한 요리 소개 및 평가	대학생·성인
	「단앤조엘」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평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가 과거 역사 속의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의 상징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에 대해 진솔한 생각 공유	1030세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단앤조엘」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교동도를 방문, 실제 실향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단과 조엘, 세계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생각 공유	1030세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웹 드라마	무장해제 로맨스 (제1~3화)	탈북청소년의 남한 고등학교 적응 에피소드를 통해 △청소년 대상 분단·통일에 대한 환기 △사회통합·화합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	1030세대
TV 방영	tVN 「벌거벗은 세계사」 독일통일 편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남북한 분단 환기와 통일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TV, 유튜브 동시 편성)	전 국민
	KBS1 「한국인의 밥상」 영농정착 탈북민 편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 된 영농정착 탈북민의 소소한 일상 모습 속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 메시지 전달	

### ③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세대의 평화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호전되어 대면행사를 늘리고,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진행(5.23.~29)하였다.

사전행사로 '통일뜨락 문화수다'를 진행(5.21.)하여 2030세대 및 국민들이 통일 공감대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개막행사는 '하나되어 봄'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집합행사로 이루어지고, 유튜브 중계도 실시되었다. 특히, 해외신진학자 아카데미가 진일보한 디지털 방식인 메타버스 형식으로 진행되어, 해외신진학자 36개 국가 64명으로 역대 최대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2030세대 및 청소년들의 통일공감대 향상을 위해 '2030 피우지 아카데미', '50초 평화통일 숏츠 영화제' 등도 실시되었다.

정부는 통일교육주간 전용 누리집(5.6.~6.30, 8주간)을 통해 학습강의안, 클립영상 등을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6만 8천여 명이



사전행사 「통일뜨락」



해외신진학자 아카데미  
「메타버스 게더타운」



장관 기념사



초등부(젠가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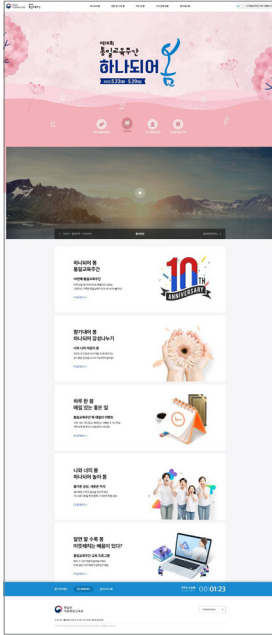


중등부(연)



고등부(빅립)

방문하고 5만 3천여 명이 이벤트에 참가하였다. 사전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 퀴즈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tvN과 공동제작한 「벌거벗은 세계사」 독일편을 방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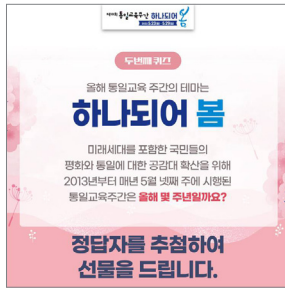
통일교육주간 공식 누리집



티저 영상



통일 관련 문답



누리 소통망(SNS) 전용이벤트



통일교육주간에 진행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120개교를 방문하고, 전국 초·중·고 113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교육주간 개막 행사에 참여하여 애국가 합창, 국민의례 낭송, 통일교육주간 미션 및 수유산책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통일교육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9개교는 통일모의 국무회의, 통일박람회, 평화통일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통일세미나 등 다양한 대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지역

유관기관 연계 및 교과 연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주간을 전·후로 자체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각 센터별 온·오프라인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모두산 통일전망대 등 통일관은 무료입장, 특별 기회전시 및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제7회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를 실시하여 메타버스를 통한 비대면 축제 및 가요·동영상 제작 등으로 1만여 명의 지역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 4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2022년 통일환경 변화에 맞춰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통일교육 지침서」 개편을 추진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국립통일교육원은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의 7개 정책과제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8개 정책과제로 확대하고 특히 새로운 정책과제로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신설하였다.

##### '2019년 기본계획(7개 정책과제)

1. 학교 교육의 플랫폼 활성화
2. 사회교육의 체계적 확장
3. 전문인력 양성의 내실화
4. 국민 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
5.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6. 체험공간의 특성화
7.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 '2022년 기본계획(8개 정책과제로 확대)

1.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2. 통일교육 사회적 거버넌스 확장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4. 통일교육 국민인식 제고
5. 통일교육 인프라 마련
6.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7. 통일교육 체험공간 운영 내실화
8. 글로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또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상황 및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통일교육 여건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12월)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해왔으나, 2018년에는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이라는 명칭으로 발간하였다. 이후 통일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 이후 4년 만에 2023년 2월 발간을 목표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제시한 통일교육지침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에 맞는 목표 5개 항과 2018년도 지침서 중점방향을 간결하게 체계화한 10개 항을 마련하고 통일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동시에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편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협조를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해왔다.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통일교육주간(5월)과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10~11월)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에 대한 통일부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 간 협조 하에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과 시행령을 개정·시행(7.21.)함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5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정부는 통일교육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한 통일교육 방향성 정립 및 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교육원 내에 통일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를 2020년 12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센터는 통일 관련 연구용역 및 대내외 협업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등 연계 학술행사 및 세미나, 저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고 통일교육 관련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및 협업연구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담론에 맞게 재구성하고, 주한 외국인, 국제학생 등을 위한 통일교육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평화통일 교육 국제화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 학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시행한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통일교육 아카이브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동아시아 지정학, 북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폭넓게 선정하고, 센터와 공동으로 협업 연구를 추진하였다.

센터는 학술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상·하반기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제10회 통일교육주간」과 연계하여 ‘2050, 차이를 넘어 통합으로’라는 주제로 세대 간 인식 차이 및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통일 문제의 세대 간 통합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국제학술행사(5.23.)



하반기 학술행사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2030 통일교육' 포스터(10.31.)

10월에는 최근 2030세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쟁점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하반기 학술행사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2030 통일교육’을 개최하였다.

한편 센터는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저널 『통일과 담론』 창간호(5월) 및 하반기호(12월)를 발간하였다. 통일외교, 남북관계, 국제정세, 통일교육 등 학계와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과 연구들을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널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2022년에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을 통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1,126회 강의를 실시하고 16만 4,050명의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은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이 개별학교를 방문하여 대상별 맞춤형 놀이 교육을 도입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학교별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체험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통일체험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총 241회 학교통일체험교육 운영 컨설팅 및 체험 경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대안학교, 섬지역학교, 해외 한국학교 등에 통일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대학생 통일 체험교육을 신설하여 총 8회 106명을 교육하였다.



학교통일체험교육(5.12, 전주 자연초등학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5.13, 광주 산수초등학교)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어린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을 통일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11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21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어린이 기자단은 온라인 발대식(5.7.)을 시작으로 월별 기사 작성, 평화·통일장소 현장 견학, 여름 캠프, 합창단 및 방송반 운영 등 통일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을 매개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9회 청소년 평화·통일문화 경연 대회」도 개최하였다. 2022년에는 「창작 통일 동요 공모전」(9.21.),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공모전」(5.19.) 등 2개 부문으로 운영하였다. 「창작 통일 동요 공모전」에는 95곡이 응모하여 9곡이 수상하였으며,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는 191편이 응모하여 18편이 수상하였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여름캠프(7.27)



창작 통일 동요 경연대회(9.21)

## ②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정부는 학교통일교육의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전국 30개의 초·중·고교를 '통일교육 연구(중심) 학교'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신규학교에 대한 컨설팅 실시, 통일교육 학습콘텐츠

및 자료 지원 등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연구학교 교사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연구학교 담당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0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11.11)하였다. 전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61편이 출품되어 12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대회는 수학 과목 연계 수업 및 놀이체험 중심 활동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장학사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을 총 4회 개최하여 국립통일교육원의 역할과 학교통일교육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통일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와 학교통일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7.9, 강원 육민관고)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발표심사(11.11.)

### ③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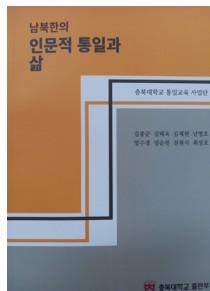
정부는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대학생에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대학생 통일논문·홍보영상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주요 권역별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6개 대학(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으로 시작하였으며, 2022년에는 수도권 3개교(경기대, 대진대, 국민대), 비수도권 5개교(강원대, 인제대, 한동대, 충북대, 전북대), 교육대학 1개교(서울교대) 등 총 9개 선도대학을 지정·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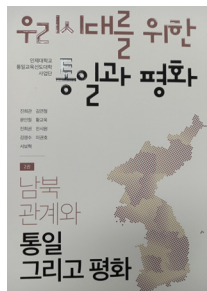
선도대학들은 전공개설, 교양필수 도입, 교양·전공 교과목 운영, 교재 개발 등 대학 통일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교과 이외에도 각종 공모전과 토론회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진대 교양필수 개설 및 교재개발



충북대 교양개설 및 교재개발



인제대 통일학 전공 운영 타대학 교과개설 지원

2022년도 '평화학과' 부전공 개설 확정	
과목명	학 과
한국문화과 평화	국어교육과
전쟁과 평화의 역사	지리·지구물리학과
다시통일지평선의 국제관계	사학과
분단과 통일	역사교육과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정치외교학과
평화 사상과 이론	평화학과
폭력과 평화	평화학과

강원대 평화학과 부전공 개설



강원대 현장체험 프로그램



전북대 스타트업 공모전



충북대 노래부르기 공모전



국민대 창작뮤지컬



국민대 대학생 토론회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사업은 대학생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통일·북한 관련 특강 및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32개 대학에 21개의 통일 특강과 29개의 통일 강좌를 개설하여 약 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간 연합학술회의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정보공유 및 확산에 노력하였다.

통일·북한문제 관심 제고와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논문·홍보영상 공모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제41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에는 논문 19편, 홍보영상 11편이 응모하여 논문 6편, 홍보영상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12.1.) 되었다. 논문 수상작은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통일교육 대학연합 학술회의(9.1.~2.)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12.22.)

### 1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에 따라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 2022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지정기간: 2022.3.~2024.2.)

권역	센터명	지정 기관
서울	서울통일교육센터	총신대학교
경인(경기, 인천)	경인통일교육센터	아주대학교
경남(부산, 울산, 경남)	경남통일교육센터	경남대학교
경북(대구, 경북)	경북통일교육센터	대구대학교
전남(광주, 전남)	전남통일교육센터	동신대학교
전북	전북통일교육센터	전북거래하나
충남(대전, 세종, 충남)	충남통일교육센터	단국대학교
충북	충북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강원	강원통일교육센터	한라대학교
제주	제주통일교육센터	제주대학교



2022년에는 기존 7개 권역에서 10개 권역(서울·경인·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제주)으로 사업 운영체계를 확대 개편하였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지정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기본·특화·연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사업’으로 통일강좌, 통일순회강좌, 통일 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순회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교육 전문강사 활용도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진행하였고, ‘연합사업’으로 권역 단위 경연·행사·축제 등 권역 내 지역 간 연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한편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통일교육도 병행하였다. 각 센터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학생평화통일박람회(5.25, 전북통일교육센터)



접경지역 분단현장체험(10.28, 경남통일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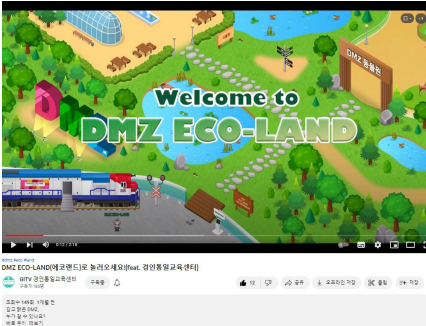
광화문광장 통일문화축제(10.29, 서울통일교육센터)



한라대학교 통일순회강좌(11.22, 제주통일교육센터)



MZ세대에게 친숙한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DMZ 가상공간을 체험하도록 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2022년 한 해 동안 11만 3천 명의 지역주민들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DMZ 및 서해 5도 메타버스 가상체험  
(경인통일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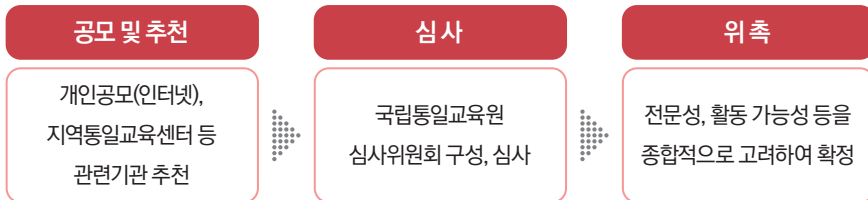


거제포로수용소 메타버스통일교육  
(경남통일교육센터)

아울러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학교·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업 추진 방향과 기준을 담은 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 2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민간 부문 통일교육 활성화

정부는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통일교육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공모와 추천으로 통일교육위원 후보자를 신청 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제23기 통일교육위원 총 723명을 위촉하였다.



제23기 통일교육위원은 국내 604명, 해외 119명으로 여성 251명(35%), 20~40대 272명(38%), 신규 433명(60%)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2022.5.1~2024.4.30.)이다.

### 제23기 지역별 통일교육위원 위촉 결과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합계
인원	123	36	39	29	21	35	26	66	32	26	23	29	28	22	34	35	119	723

\* 해외위원은 LA 34명, 뉴욕 28명, 워싱턴 18명, 베이징 16명, 일본 17명, 독일 6명

통일교육위원의 지역별 회장단이 선출됨에 따라 제23기 통일교육위원 회장단 출범식을 7월 27일 개최하였다. 출범식은 통일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통일교육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3기 통일교육위원 회장단 출범식(7.27.)



제23기 통일교육위원 위촉장 수여식(7.27.)

제23기 신규위원을 대상으로 통일 및 대북정책, 북한의 최근 동향, 한반도 주변정세, 평화통일 비전과 통일교육위원 역할 등을 주제로 총 3차례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재위촉위원을 대상으로 류우익 前통일부장관(10.28.), 안호영 前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11.24.), 김형석 前통일부차관(12.8.)을 포함하여 총 3차례 명사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현지로 직접 찾아가서 통일교육위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대구(11.30.), 부산(12.1.), 광주(12.2.)에서 통일정책과 한반도 주변 정세, 북한동향과 한반도 미래 등의 강의를 실시하였고 위원들의 통일교육 활동 현황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해외위원 25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4박 5일간(9.26.~30.) 원내교육 및 접경지역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여 해외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꾀하였다. 또한 미국 LA지역 통일교육위원 대상으로 현지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설명회(12.9.)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위원들에게 확장현실(XR)을 활용한 통일 교육교재, 업무용 수첩 등 자료 지원을 통해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협의체로, 73개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 역량강화(11.30, 대구)



명사특강(10.28, 온라인)

2022년 정부는 31개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에 2억 6천 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동 협의회는 2022년 제4회 대학생 기자단 통일기사 경진대회, 회원단체 실무자 통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청소년·시민 분과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제7회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5.23.~29.)를 개최하는 등 회원단체 간 연대사업도 실시하였다.

### ③ 통일관 운영

통일관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서 현재 전국에 13개 통일관이 운영 중이다. 모두산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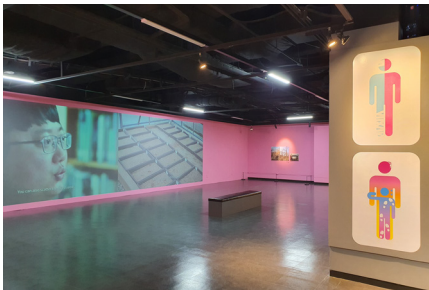
####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치	운영 주체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서울 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부산 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인천 통일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유총연맹 인천지부
광주 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위탁: (사)우리민족)
대전 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관광공사
고양 통일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고성 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주)통일전망대
양구 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
청주 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충남 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자유총연맹 충남지부
경남 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유총연맹 경남지부
제주 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유총연맹 제주지부

전망대는 통일부에서 설치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 통일관은 민간·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면 전시를 확대하는 동시에 방역과 안전점검에도 힘쓰며 수도권 대표적인 통일 전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2년에는 기획 전시를 3회 개최하고 통일 공감을 위한 여러 행사·방송을 지원하였다. 특히 증강현실(VR) 망원경을 설치하여 어떠한 기상환경에도 주변 일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전시환경 개선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고령자 등을 초청하여 위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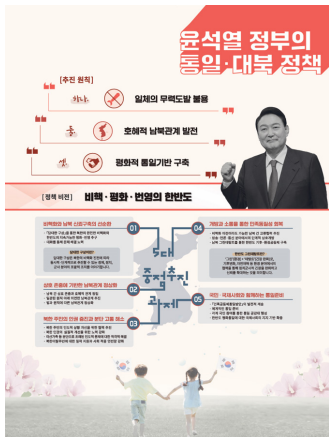


기획 전시 「DMZ 사람들」(3.25.~5.31.)



파주 탄현면 어르신 초청 위로 행사(11.30.)

정부는 전국 13개 통일관에 통일정책·남북관계·북한 실상 관련 다양한 통일 교육 전시 자료와 체험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디지털 체험형 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VR콘텐츠와 포토 키오스크 등을 지원하였으며,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관련 전시 패널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또한 제주 통일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정부 대북정책 전시패널



리모델링한 제주 통일관 모습

지역통일관에서 ‘VR 체험’, ‘전통놀이 체험’, ‘통일 염원 바람개비·아트비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청소년·성인 등 4만 1천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2022년 통일관 관람객은 2021년 70만여 명에 비해 56만여 명이 증가한 약 12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14일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대상 통일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법률에 따라 교육대상 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매년 1회(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다.

정부는 교육대상 기관들이 통일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사이버 교육과정 제공, 추천 강사 명단 제공, 교육용



도서·영상 자료 등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통일교육 누리집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본격 실시된 지 4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육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부문에 대한 통일교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의 경우 대상기관의 64.7%가 실적을 제출하였고, 약 67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대상기관의 90.1%가 교육실적을 제출하였고, 약 88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3년차인 2021년에는 대상기관의 90.4%가 실적을 제출하였고, 약 97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참여 인원이 100만 명에 달하였다.

2022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가 선정되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통일공감대 확산 행사 개최, 통일공감대 확산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 관련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꾀하였다.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지표는 2023년 실적지표로 재선정되어 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5월~11월, 4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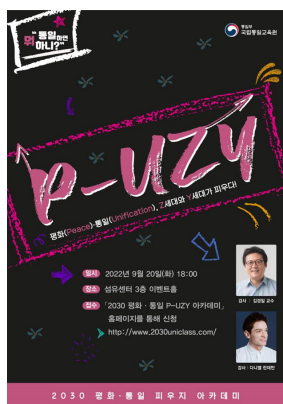
## 5]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정부는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2년에는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대화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제3기 2030 피우지(P-UZY) 아카데미」(1차 5.25, 2차 9.20.), 「글쓰기로 피우지 feat. 김중혁 작가(8.23.~10.12.)」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3기 2030 피우지(P-UZY) 아카데미」는 2030세대의 통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진행한 행사로, 올해 세 번째로 운영되었다. 피우지(P-UZY)는 평화(Peace)와 통일(Unification)을 Z세대와 Y세대가 함께 피워 낸다는 의미로 2030세대가 중심이 되어 통일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아카데미는 대면 교육 회복 기조 속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되었으며, 독일 통일, 통일의 심리학 등 통일 이슈에 대한 저명인사 강연과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조별 토론을 통해 2030 참가자들이 '내 삶 속의 통일의 의미'에 대한 입장문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피우지 아카데미 포스터  
(5.25.)



제2차 피우지 아카데미 포스터  
(9.20.)



피우지 클래스 포스터  
(8.23.~10.12.)

하반기에는 2030세대가 통일에 대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글쓰기로 피우지 feat. 김중혁 작가」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2030세대가 관심이 있는 '문화'와 '자기계발'을 함께 다루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높아진 대면 활동 수요에도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4회의 비대면 강의와 2회의 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소통'과 '통일'을 주제로 각 2편의 글을 써서 서로의 글을 함께 읽어봄으로써 글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글을 모두 엮은 문집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여 피우지 클래스에 참여했던 경험이 오래 남도록 하였다.

###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정부는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이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재외동포 등 다양한 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남북 간 청소년 교류, 이산가족상봉 등 인적교류 지원을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센터)를 경기도 연천에 건립하였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2022년 12월까지 총 947개 학교·단체, 총 199,566명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인식 제고에 노력하였다.

2022년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2020년 12월 20일 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제6중앙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이 4월에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시설 복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연수는 2021년에 이어 ‘찾아가는 연수’와 ‘비대면 연수’를 함께 실시하면서 연수 동력을 유지하였다. 하반기에는 시설 원상복구와 시범연수 실시 등 준비를 마치고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 입소형 연수를 진행하여 나갔다.

##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 (1) 청소년 등 각계각층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센터는 국내 유일의 정부 직영 통일체험기관으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수도권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연수’, 전국 각 지역의 초·중·고 학교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연수를 진행하여 통일전문 체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연수’는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심어주고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찾아가는 연수(4.28, 인천서구청청소년센터)



비대면 연수(6.8, 전북 이리남성여중)

또한 연수 운영과 지도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역량 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아울러 초등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몰입도와 흥미 향상을 위한 교구재로 퀴즈, 미니 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된 ‘신비한 시간나무’ 플레이북을 3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교구재 사용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구사용 안내 영상과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한 체험키트, 연수 가이드북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신비한 시간나무’ 플레이북(초등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 교구재)

센터는 온·오프라인 연수환경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 연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입소형 연수와 비대면 연수의 융합을 통한 최적의 연수운영 방안을 강구하였다.

하반기에는 연수 정상화 재개에 만전을 기하고 본격적 연수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통일부 유니콘기자단과 어린이기자단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입소형 연수를 시범사업으로 3회 실시하였다.



유니콘기자단(7.5.-6.)



어린이기자단(7.27, 8.3.)

아울러 연수 프로그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일체험 전문연수와 충남·전남·경기·인천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소형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DMZ 국제청년 평화순례」 참가자 연수, 해외통일교육위원 연수 등 특화 연수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긍정적 통일인식 공유와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협력의 기회 제공 등 센터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연수(11.17.~18, 남북하나재단)



일반연수(9.20.~21, 충남 한국식품마이스터고)



2022 DMZ 국제청년 평화순례 참가자 연수(8.19.~22.)



해외통일교육위원 연수(9.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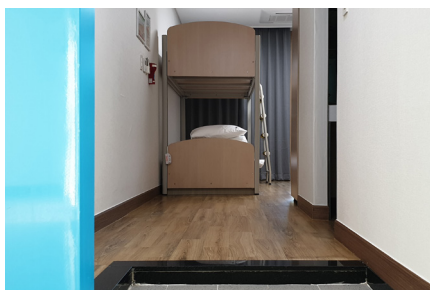
## (2)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및 환경 개선

센터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거주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제6중앙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었다. 그동안 500여 명 규모의 연수 숙박시설(생활관 112실) 전체가 치료병동으로 전환되었고, 미래체험관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운영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가족빌리지 6채도 생활숙소로 이용되었다. 센터는 생활치료센터 시설의 냉·난방, 유지보수, 청소, 안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파견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된 후 병상과 운영사무실로 사용된 시설 전반에 대한 원상복구를 8월 말 완료하였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된 생활관과 가족빌리지, 미래체험관은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여 보수·보강하고, 보도블록 교체와 조경 경관 개선 등 편의시설도 개선하였다. 또한 생활관 필로티 기둥 정밀 안전점검, 체험관 후면 옹벽 안전진단, 여름철 폭우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공사 등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아울러 센터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센터 내 주차장과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900kW급 수준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생활관 개선 사업



미래체험관 포토키오스크 신규 도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생활관 옥상)



##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제1절 |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제2절 |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

제3절 |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제4절 | 통일법제 구축

제5절 |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는 헌법 제4조에 따라 통일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이후 거의 30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그사이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를 반영하여 발전된 형태의 통일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사통팔달’이라고 명명하고, 국내외 각 지역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통팔달’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논의에 대한 전국 단위 그리고 지역 단위의 소통·참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해 국민들의 쌍방향적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적으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개최, 호남·강원·충청·경기 권역별로 통일\*센터 설치·운영 추진, 서울·부산 등 지역 사회에서의 통일문화행사 개최, 카드 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와 협력을 확인하였고, 독일과는 통일·통합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재외동포 사회를 통한 통일 공공 외교를 확대해 나갔다.

한편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 작업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편성·운영하였다.

### 1 '사회적 대화' 추진

'사회적 대화'란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대화 형식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사업'을 2018년부터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참여하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 추진 체계를 활용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의 대상을 시민단체 활동가, 청소년, 2030세대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대·추진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8월 20일부터 11월 21일 까지 총 31회 2,253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다.

2022년에 추진한 '사회적 대화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상 실현 등 통일방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7개 지역 거점 등에서 대상별로 진행하였다.

'국민 대화'는 서울, 수원, 대구, 부산, 춘천, 광주, 대전 등 7개 지역에서 성·연령·이념성향 등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단 726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진행되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대화'는 서울, 경남, 부산, 대구, 인천, 춘천,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보수·진보·중도·종교단체 활동가 441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진행되었다.





대구 지역 활동가 대화(11.6)



경기 지역 활동가 대화(11.21)

‘청소년 대화’는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 하에 동아리·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생 886명을 대상으로 총 13회 진행되었다.



비전고등학교(10.5, 평택)



봉명여자중학교(11.7~11, 김해)

‘2030세대 대화’는 2030 청년세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2 청년포럼: 통일부차관과의 대화’(8.29)와 ‘2022 청년대화’(10.29) 등 2030세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된 ‘전문가 플랫폼 사업’은 전국 7개 지역에서 통일·대북정책 분야 관련 학자·연구자·활동가 등 지역 전문가 70명으로 구성·운영 하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사회적 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회적 대화



2022 청년포럼(8.29, 오두산통일전망대)



2022 청년대화(10.29, 서울)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으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사회적 대화(8.17~18.)에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2022 사회적 대화 심포지엄’도 개최(11.3.) 하였다.

##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적 계승

1994년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민족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된 통일환경과 쟁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모색’ 학술회의(10.21, 서울)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기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통일방안 계승·발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다. 정부가 하반기에 실시한 통일대북정책 여론조사에서는 60.9%의 응답자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보완 및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하였다.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론화도 추진하였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원칙, 과정, 미래상 등 통일방안의 여러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100명의 국민참여단은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토론회(12.15, 대구)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토론회(12.16, 광주)



사통팔달 아이디어 콘테스트(12.18, 서울)

나누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통일 미래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사통팔달

아이디어 콘테스트’도 개최하였다. 남북 및 국제협력, 통일공감대 확산 등 통일 실현 아이디어를 가진 68개 팀이 응모하였으며, 총 5개 팀이 수상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통일 미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적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이 되는 2024년에 새로운 발전안을 발표한다는 계획 아래 2023년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③ 통일+센터 운영 및 확대 추진

정부는 지역사회의 통일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통일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물리적 거점인 통일+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나가고 있다. 2018년 9월에 시범적으로 인천통일+센터를 개소하였고, 2021년에는 호남권·강원권 통일+센터 설치에 착수하였다.

2022년에는 통일+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통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풀뿌리 통일 논의의 지역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인천통일+센터는 지역사회 통일 관련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하였고,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인천남정평화교육원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일+센터 발전방안 좌담회」(9.16, 23, 30.), 「통일현장 문화체험」(10회) 등을 실시하여 통일·대북정책 관련 협업을 확대하였다.

인천통일+센터는 다양한 지역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인천시·강화군과 협업하여 「청소년 통일공감 캠프」(7.14.)를 개최하였고,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통일현장 문화체험」(15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특강」(9.14, 10.19, 11.23.)을 개최하여 통일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인천통일+센터는 또한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지역밀착형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인천시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통일 어울마당」(10.8.)을 개최하였고,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 한반도 직업 체험전」(9.17, 10.1.)을 실시하여 통일 한반도의 유망 직종을 미리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천시청역에서 「평화통일 기원 시화전」(11.1.~11.)을 개최하였다.



청소년 통일현장 문화체험(7.8, 강화군)



통일 한반도 직업 체험전(9.17, 인천문화회관)

인천통일\*센터는 인천하나센터, 지역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 소통·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남북한 주민이 각자의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생애 나눔대화」 프로그램을 6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일로 통하는 어울림 마당」(5.28.)을 개최하여 남북한 주민이 함께 다양한 북한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천시와 협업하여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10.22.)를 개최하였고, 남북한 주민이 함께 김장을 하여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눔」(11.12.)도 진행하였다.

호남권·강원권·충청권·경기권 통일\*센터도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랜드마크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호남권 통일\*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23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강원권 통일\*센터는 춘천시 삼천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권 통일\*센터는 의정부시 캠프라과디아 부지 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설계·공사를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2023년부터 설계·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충청권 통일\*센터는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설계·공사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2023년부터 설계·공사를

구분	위치	개관연도
인천통일*센터	인천시 연수구	2018년
호남권 통일*센터	목포시 용해동	2023년
강원권 통일*센터	춘천시 삼천동	2024년
경기권 통일*센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2024년
충청권 통일*센터	홍성군 홍북읍	2025년

진행하여 2025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호남권 통일\*센터 조감도



강원권 통일\*센터 조감도



통일부장관, 충청권 통일\*센터 부지 방문(12.14.)

#### 4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 (1) 통일문화행사

통일문화행사는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통일 관련 다양한 예술 활동 지원과 공연·전시·체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에는 통일문화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영화 매체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가깝게 다가가고자 「청년평화영화제 공모전(1.24.~4.22.)」을 개최하여 ‘가깝지만 멀리서’ 등 6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관객들과 제작진이 만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하였다.



수상작 카드뉴스 제작(4.25.)



청년평화영화제 관객과의 대화(4.22, 국립통일교육원)

정부는 하반기에 통일논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사통팔달’의 일환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대면방식의 통일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부산(10.15, 벡스코)과 서울(10.29.~30,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지역밀착형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문화행사 브랜드명 공모(6.27.~8.7.)」를 실시하였고 공모에 참여한 총 494건을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포함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통하나봄’을 공식 브랜드명으로 선정하여 행사명으로 활용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10월 15일에 개최한 통일문화행사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통일부가 비수도권에서 개최한 첫 번째 통일문화행사로서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통일문화의



성공적인 지역 확산을 도모하였다. 다양한 공연, 전시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로 피우다’ 댄스경연대회, 통일벽화그리기 등 색다른 참여프로그램들을 진행(무대공연 6개, 전시 8개, 체험프로그램 9개, 홍보관 8개)하여 부산 시민들이 통일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통일문화행사 「서울에서 통하나봄」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고, 해당 지역 예술가 및 지역주민 공연팀을 참여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는 특히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을 고려한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체험 프로그램들을 배치(무대공연 10개, 전시 6개, 체험프로그램 16개)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깝고 쉽게 통일문화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일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부산에서 통하나봄」(10.15, 벡스코 제1전시장)



「서울에서 통하나봄」(10.29.~30,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2) 국민과의 소통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과 누리 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30 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제페토 플랫폼 내 DMZ 관련 월드맵 3건을 구축하여 2030 세대가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백마고지 월드맵(DMZ 과거)



두타연 월드맵(DMZ 현재)



제진역 월드맵(DMZ 미래)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 및 보도자료를 디지털 콘텐츠화 하였으며, 「소원이자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안녕 나의 이웃」, 「평화에 빠지다」 등의 카드뉴스 시리즈를 제작해 통일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소원이자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카드뉴스 시리즈



「안녕 나의 이웃」 카드뉴스 시리즈



「평화에 빠지다」 카드뉴스 시리즈

또한 정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웹 예능 영상 「차타고 248」, 기관장 국민 소통 영상 「권영세 장관과 통일Talk」 등의 영상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하여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차타고 248」 영상 시리즈



「권영세 장관과 통일Talk」 영상 시리즈

특히 일상 속에서 통일에 대해 관심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부 주요 이슈, 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숏폼 영상으로 다양하게 담아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통일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숏폼 영상

### (3)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정부는 2015년부터 음악과 영화 등을 포괄한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에는 제8회 통일염원 창작 대중음악 경연대회 「2022 통일로가요」(9.26.~11.6.)를 개최하였다.

「2022 통일로가요」에는 발라드, 힙합, 록,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70개 팀이 응모하였다. 1차 동영상 예심을 통해 20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2차 실연평가(10.28.)를 북아현아트홀에서 진행하여 최종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SWAY'의 「할아버지의 소원」이, 우수상은 'Keepro & SUZNN'의 「하나의 행진」과 '천동뮤지션'의 「음성메시지」가, 장려상은 '너울'의 「바다로 가자」,

#### 「2022 통일로가요」 경연 대회



2차 예선(10.28, 북아현아트홀)



결선(11.6, VSG아레나)



대상팀 독일 공연(11.12, 라이프치히)





‘댄싱플라워’의 「악수», ‘오정훈’의 「떠나간다», ‘양상블 현’의 「에움길」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통일부장관상을 수여하였다. 대상팀 SWAY는 독일 라이프치히 한인회가 현지에서 주최한 「제10회 통일희망 음악회」(11.12.)에 참가하여 축하공연 및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였다.

대상팀 뮤직비디오와 결선 영상 및 특집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 통일방송(이하 UniTV)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일주일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상곡 앨범을 발매(12.30.)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음원사이트에 등록하였다.

#### (4) UniTV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UniTV를 운영하여 2030세대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UniTV는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부 누리집과 누리 소통망(SNS)에 게재하고, 네이버TV캐스트, 카카오투V 등에 송출하고 있다.

UniTV는 정규 프로그램 「통일NOW」를 「통일 브리핑», 「통일 현장», 「통일 왓삼」으로 구성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총 46편(세부 콘텐츠 총 138편)을



「통일 브리핑」



「통일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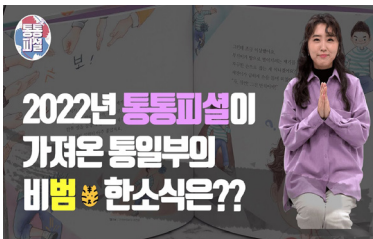


「통일 왓삼」

제작하였다.

「통일 브리핑」은 남북관계 및 통일 소식을 주로 전달하였고, 「통일 현장」은 정부와 민간의 통일 관련 행사와 활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통일 왓삼」은 기존의 「통일왓수다」를 개편한 것으로, 방송인 출신 진행자가 통일·북한 관련 전문가 및 주요 인사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예능 토크쇼로서 통일문제를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정규 브리핑과 달리 유튜브에 보다 적합한 톡톡 튀는 형식(그래픽 효과·ميم 삽입 등)의 정보 전달 프로그램인 「이주의 통통피셜」 4회, 탈북민의 한국생활 정착기를 담은 「노스텔러」 6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알리는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를 6회 제작·송출하였다.



「통통피셜」



「노스텔러」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

2022년 기획프로그램은 정책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남북관계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남북이야기」 10회, 미래 통일된 학교에서 남북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공동학교구역 JSA」 13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들어보고 음악과 음식으로 치유해주는 「피스뮤직레스토랑」 16회 등을 제작하였다.

UniTV는 인터넷방송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공공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통일NOW」는 KTV국민방송(주 1회), 아리랑국제방송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남북이야기」



「공공학교구역 JSA」



「피스뮤직레스토랑」

TV(주 4회), 복지TV(주 3회)를 통해 매주 방송되며, 2022년에는 MGTV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통일방송 콘텐츠를 송출하여 국민들과의 정책소통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교육현장의 교사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통일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UniTV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1 주요국 정부 대화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국 대화를 매년 추진해 왔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왔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에 합의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지도 표명하였다.

정부는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6.8.)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4.19, 9.22.)를 접견하였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8월 5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우리 정부 구상에 대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양국이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과의 대화 모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통일부장관은 7월 8일 미국 코리아스터디그룹 의원 방한단, 그리고 8월 12일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각각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인도협력 추진원칙 등을 설명하였다.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8월 8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10.2~5.)하여 독일 통일 제32주년 기념식에 참석(10.3.)하였다. 독일 방문 계기에 올라프 솔츠 총리, 보도 라멜로 연방 상원의장 등 독일 주요 인사를 만나 한반도 통일 문제와 한국과 독일 간의 협력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10월 4일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예방하여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독일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희망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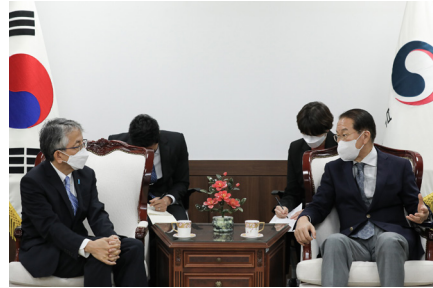
10월 14일 통일부장관은 방한한 멜라니 줄리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캐나다 외무장관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중국 및 유럽국가와도 고위급 대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8월 22일 통일부장관은 한중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 참석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수교 30년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8월 24일에도 동인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월 13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와 9월 21일 루카스 만들 의원 등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인사로 구성된 방한단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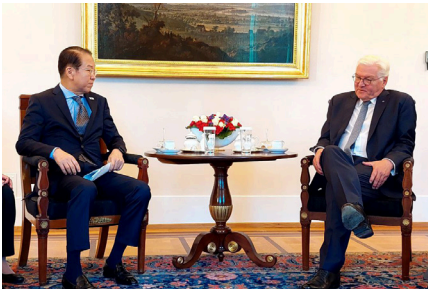
통일부차관은 10월 27일 엔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의 통일부 첫 방문 계기에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모라 사무차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1월 16일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데이비드 엘리스 주북 영국대사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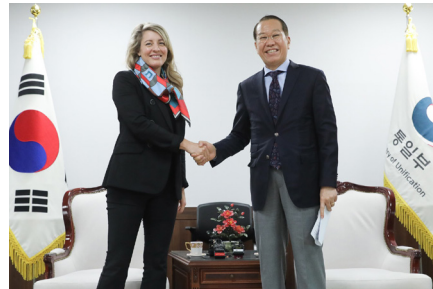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6.8.)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8.8.)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예방(10.4.)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접견(10.14.)

## 2 양자·다자회의 및 정책설명회

### (1)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지난 2010년 독일 내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기초하여 매년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가며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개최해왔다. 2022년 제11차 자문 위원회는 9월 14일에서 15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과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독일 측에서는 위원장인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을 비롯한 3명의 자문위원과 미하엘 그로쎄-브뢰머 연방하원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1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동서독 인권 상황과 체육·문화 교류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9.14.~15.)

###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참석자 명단

한국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기웅 통일부차관(위원장)</li> <li>•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li> <li>• 김재신 전 독일대사, 국립외교원 겸임교수</li> <li>•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li> <li>•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li> <li>•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li> <li>• 정태현 고려대 사학과 교수</li> <li>•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li> <li>• 김성보 연세대 사학과 교수</li> <li>• 이찬희 변호사</li> <li>•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li> <li>•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스텐 슈나이더 정무차관 겸 신연방주특임관(위원장)</li> <li>• 요한 할렌 전 내무부 사무차관</li> <li>• 미카엘 홀만 독일 연방문서보관소 소장</li> <li>• 호르스트 웰러 뮌헨대 역사학 교수</li> <li>• 클라우스-디터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li> <li>• 리하르트 슈뢰더 전 시민당 원내총무</li> <li>• 호르스트 텔치 전 연방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li> <li>• 로타드 메지에르 변호사, 전 동독 총리</li> <li>• 요하네스 루데비히 전 제1대 신연방주 특임관</li> <li>• 카를 하인츠 파케 전 작센-안할트주 재무부 장관</li> <li>• 라이너 에펠만 전 동독 군축국방부 장관</li> </ul>

## (2)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최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2010년에 시작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KGFP)은 매년 전 세계 20여 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사회의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해왔다.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전환기 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었다. 2022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남북관계 및 통일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장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외 27개 협력기관(총 30개 세션)과 약 20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통일 비전,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비핵화와 북한 변화전망, 정책 연속성 확보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였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과 호르스트 텔치 전 서독 콜 총리 외교안보보좌관,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미래학자 후안 엔리케스가 특별강연을 하였다. 전직 장관과 정치인·학계·언론 그룹을 초청하여 현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현인대화」도 개최하였다.

또한 NGO, 연구기관 등이 주관하여 북한 비핵화 해법 모색과 국제협력, 최근 북한 정세 평가 및 전망,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동북아 지정학과 한반도에 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 그린데탕트, 자연재해·재난 공동 대응, 한반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평가해보고 남북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북한의 국제기구에의 참여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 방안들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8.30~9.1.)

###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b>[1일차, 8.30(화)]</b>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 권영세 통일부장관</li> <li>• 축사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녹화영상)</li> </ul>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li> <li>• 호르스트 텔치 전 서독 헬무트 콜 총리 외교안보보좌관</li> </ul>
세션 주요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인대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정상화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평가</li> <li>△북한 비핵화 해법 모색 △담대한 구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 등</li> </ul>
<b>[2일차, 8.31(수)]</b>	
특별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안 엔리케스 미래학자</li> </ul>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녹화영상)</li> </ul>
세션 주요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국제안보 질서 전망 △북한 대내외 정책 및 대응 전략</li> <li>△남북 그린데탕트 과제 △남북 환경, 자연재난 협력 △한반도 인프라 구축 방안</li> <li>△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등</li> </ul>
<b>[3일차, 9.1(목)]</b>	
세션 주요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교육 국제화 및 통일 공공외교 △남북 농업협력 △북한인권 개선</li> <li>△코로나 시기 북한의 대응, 북한의 국제환경기구 참여 현황 등</li> </ul>

### (3) 주한 공관 및 주요국 대상 정책설명회

정부는 주한 공관 및 주요국 정부 대북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주한 공관장 대상 정책설명회를 3차례 개최(1.25, 4.5, 12.16.)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정부는 12월 16일부터 통일·대북 정책설명회를 ‘UniOn(Unification On) Talks’, 즉 ‘통일을 켜는 대화’로 명명하면서 국제사회 곳곳에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의 등불을 켜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주한 공관장 대상 정책설명회(12.16.)

### ③ 통일 공공외교

정부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재외동포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통일 공공 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한반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해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장학 및 학술교류 사업인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은 북한·통일학 석·박사 2~3년 과정과 학술연구 펠로우십

6~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3년차인 2022년에는 학위과정 지원 대학을 종래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을 추가하여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2022년 기준 석·박사 학위과정 3명(2020년부터 누계 9명), 펠로우십 7명(2020년부터 누계 25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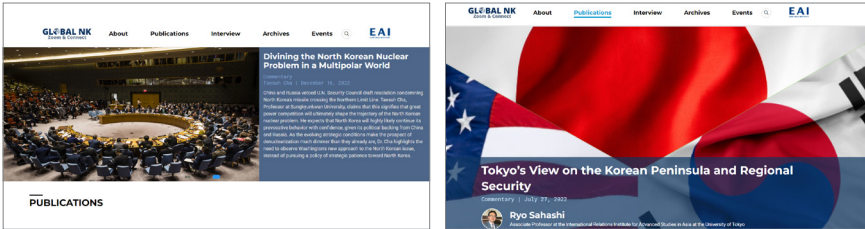
또한 2022년부터 동 사업을 기존 방한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공모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한반도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들의 학술연구 지원(6건)과 세미나 지원(1건)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북한·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2년 12월에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동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참가자 합동워크숍(11.21.-23.)

정부는 2021년 8월 온라인 통일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웹저널([www.globalnk.org](http://www.globalnk.org))을 개설하였다. 동 사업은 국내 연구자들의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해와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총 70여 건의 국내 전문가의 분석, 연구, 인터뷰 등을 게재하였다. 특히 9월에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는 통일부장관의

영상인터뷰를 자막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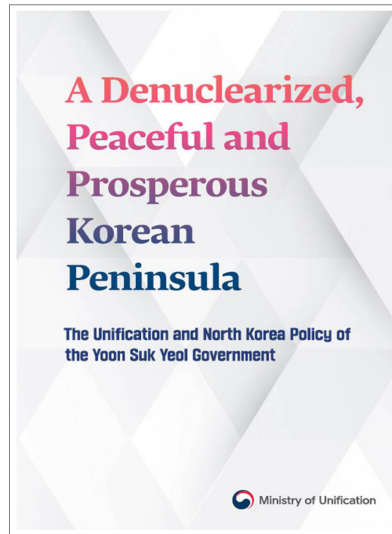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웹사이트(www.globalnk.org)

정부는 다양한 해외 수요자를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어 자료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에도 『통일백서』 영문판을 제작하여 주요 국가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설명자료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로 제작하여 주요 기관에 배포하였다.



『통일백서』 영문판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 영문판

한편 정부는 재외동포와 협력하여 해외에서 통일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국에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공공외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2022년에는 해외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지역에서 개최된 통일문화행사를 지원하였다. 주요국 한인 네트워크 조직과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개최지역	개최 시기	통일문화행사명
독일	8.18.	평화문화제 III 분단을 딛고 평화를 노래하고 춤추다
독일	10.3.	제4회 베를린 한반도 평화음악회
독일	10.4.	제3의 자연: 에어푸르트 이전 기념 오프닝
미국	11.5.	K-PEACE FESTIVAL IN WASHINGTON DC 워싱턴 평화통일축제
캐나다	11.5.	“소원” 평화통일음악회
일본	11.22.	복합무용극 (HIKARI - 빛)
영국	12.4.	온새미로 한누리 콘서트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10.4, 독일)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11.22, 일본)

### 1 북한정보포털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축해왔다. 2013년에는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포털시스템(nkinfo.unikorea.go.kr)을 구축하여 2014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이후 자료와 DB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동향,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야별 현황, 그리고 인물, 사전, 통계, 간행물, 영상 등 참고 자료가 있다. 부가 서비스로 북한 TV프로그램 편성표, 권력기구도, 북한 주요행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약 30만 건의 지명과 시설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북한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정부는 국민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북한정보포털 개편에 착수하였다. 2022년 10월 27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존 북한정보포털 분석 및 신규 모델 설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4분기에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많은 북한 관련 자료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2 북한자료센터 운영

정부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축적을 통한 대국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의 북한 이해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 정보 공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2년에는 인천 지역 공공도서관 세 곳과 협업하여 통일문고 운영, 작가와의 만남, 원화 전시, 남북회담사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통일을 읽다」 행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통일을 읽다」 현장 사진



수봉도서관

울목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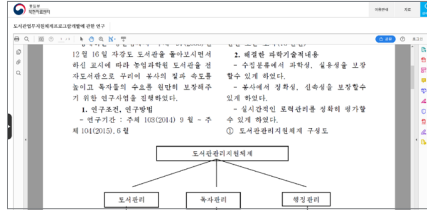
영종도서관

센터는 2010년부터 북한자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아카이브 시스템에 실시간 업로드함으로써 「조선중앙TV」 내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열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센터 이용 사전예약제를 7월 6일부터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원본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자 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 메인화면



디지털 아카이브 주요 콘텐츠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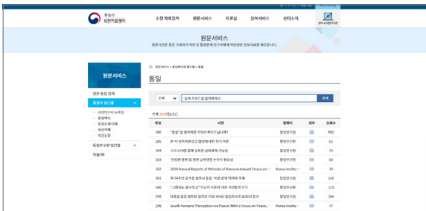
센터는 통일·북한 관련 단행본 8만 1,500여 권, 정기간행물 1만 3,900여 권, 비도서자료 1만 350여 권, 통일부 발간 도서 6,900여 권 등 총 11만 3,394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는 단행본 2만 4,773건 등 총 3만 6,992건을 소장하고 있다.

### 북한 발행 자료 보유 현황

(단위: 권, 2022.12월 말 기준)

구분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	계
보유 건수	24,773	4,871	7,348	36,992

센터 누리집(unibook.unikorea.go.kr)에서는 소장 자료 및 기사 목록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 영화 소개와 북한 교과서 및 북한 만화 소장 목록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부 발간 자료 7천여 권과 통일연구원 발간 자료 3천여 건의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자료 원문 연계 화면



통일부 자료 원문 연계 화면

한편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통일·북한 관련 학술DB 9천여 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원문DB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4,700여 편의 북한 영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기관 또는 단체가 북한 영화 상영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북한 예술 영화 200편을 대상으로 ‘북한 영상자료 분석 및 활용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더 많은 북한 영화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영화 상영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서 확대에 따른 서가 및 이용자 열람 공간 부족, 디지털 아카이브 공간 등 편의 제공 확대 필요, 자율적 운영 제약 등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자료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2025년 말 「통일정보자료센터」로 개칭하여 개관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인근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부지는 약 6,600㎡, 건축연면적은 약 9,900㎡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이 445억 원이 투입되는 본 건립사업은 2022년 9월에 부지매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다. 2023년 하반기에 설계 작업 완료 후 착공하여 2025년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관 이후 「통일정보자료센터」는 통일·북한 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 및 이용자의 수요를



조감도



투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장 북한자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고도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각종 통일사료를 전시·보관하는 통일사료관의 기능도 병행하며, 그 밖에 국민들이 다양한 통일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과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도 연구 및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통일법제 연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인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4회(3.27, 6.30, 9.21, 12.13.) 개최하여 통일법제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12월 15일에는 법무부·법제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유관부처 간 통일법제 관련 연구 결과와 향후 연구 사안들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부처 간 중복을 피하고,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통일법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2월 16일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와 함께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평화통일을 위한 법적 쟁점)'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계 내 통일법제 연구 활성화와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등 통일법제 관련 정책연구용역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학술대회(12.15, 프레스센터)

##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2022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3,913억 원이다.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 및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00억 원을 출연 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55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억 원과 증권사 등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762억 원 등 총 1,763억 원을 회수하였고, 자체수입은 사업비 정산 환입 등 95억 원이다.

2017~2022년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1,967	6,411	4,008	7,941	4,929	3,913
정부출연금	1,830	637	1,000	1,500	1,000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여유자금 회수	2,304	2,789	846	624	1,419	1,763
자체수입	183	201	132	331	140	95



##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2022년 총 1조 5,571억 원(사업비 1조 2,690억 원 포함)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제323차~제327차, 총 5회) 및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제183차~제192차, 총 10회)를 개최하여 총 926억 원 지원을 의결하였고, 779억 원을 집행(2021년 이월 예산 57억 1,724만 원 집행액 포함,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1%) 하였다.

사업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남북 사회문화교류」 항목에서는 총 3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왔던 교육학술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에 23억 9,600만 원, 문화유산 협력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관련 디지털 복원 및 디지털 기록관 운영 지원에 5억 원,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 사업 지원에 4억 5,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 항목에서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영상 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비용 등으로 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교류 경비지원 등에 8,2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항목에서는 향후 대북 보건·의료협력을 대비한 연구용역 등으로 2억 원, 대북 보건·의료협력 관련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운영에 1억 원, 대북 인도협력 민간단체 지원 등에 23억 2,000만 원, 대북지원 사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원에 7억 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 항목에서는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사업(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37억 8,800만 원,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300만 원, DMZ 국제평화지대화·

그린평화지대화에 대한 연구용역 등으로 8억 800만 원, 'DMZ 평화협력 국제 포럼'에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외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운영 지원에 17억 400만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에 1억 3,900만 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에 64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지원」항목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58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재개 준비를 지속하고, 개성공단 기업 기업운영관리경비 및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에 11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아울러 「한반도통일미래센터」항목에서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2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 밖에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에 1,055억 원, 예수이자 상환에 431억 원 등 총 1,48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는 2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다.

### 2017~2022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2	41	70	32	31	29
	남북 사회문화교류	37	100	37	43	35	34
	인도적 문제 해결	20	78	358	151	40	44
	남북경제협력	405	1,760	197	128	122	325
	개성공단지원	180	138	88	88	84	347
	소 계	684	2,117	750	442	312	779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여유자금 운용		2,789	846	624	1,419	1,763	1,625
기금 운영비		24	28	24	24	23	23
<b>합 계</b>		<b>11,967</b>	<b>6,411</b>	<b>4,008</b>	<b>7,941</b>	<b>4,929</b>	<b>3,913</b>

### 3 2022년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22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2,88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70건, 2,888)
2022년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2,396	남북 사회문화교류 (17건, 3,354)
2022년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지원	458	
2022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복원 지원	400	인도적 문제 해결 (39건, 4,393)
2022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지원	100	
2022년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기금 지원	82	남북경제협력 (477건, 32,520)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기금 지원	57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남북기금 지원	276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기금 지원	607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사업 의약품 및 공기를 지원	335	
북한 농촌지역 아동 등 영양증진사업 지원	848	
북한 아동 공기를 지원사업 지원	801	
북한 어린이 빵, 콩, 우유 무료급식 사업 지원	336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원	705	
북한 양묘장 현대화 지원물품 남북기금 지원	46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중장기 전략행동계획 수립 기금 지원	80	
북한 만성질환 관련 의료체계 강화 방안 연구 기금 지원	40	
북한 결핵실태 평가와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기금 지원	40	
남북 및 국제사회 대북협력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사업 지원	100	
대북 감염병 관리 및 방역 대응체계 강화 지원방안 구축 지원	40	
2022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지원	3,788	
2022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139	
경협, 교역, 금강산 기업 앞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6,470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11,467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 지원	114	
DMZ 평화협력 국제모범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1,278	
(유상)경협, 교역, 금강산 기업 4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9,264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22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5,806	개성공단지원 (186건, 34,761)
개성공단 기업 앞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3,090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	8,454	
(유상)2022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2,206	
(유상)개성공단 기업 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15,205	
<b>총 집행액</b>	<b>77,916</b>	<b>총 789건</b>

※ 사업별 집행액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 집행액과 다를 수 있음.



# 부록

## APPENDIX

-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UNIFICATION WHITE PAPER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I

## 남북관계 주요 일지

### 1월

- 1.1.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람.”
- 1.5.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자강도 무평리일대)
- 1.5.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 1.11.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자강도 희천일대)
- 1.14. 北 외무성 대변인, 美 독자제재 관련 비난 담화(중통)  
-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 검토”
- 1.14.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안북도 의주일대)
- 1.17.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1.17.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
- 1.19. 北,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1.20, 노동·중통)  
-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 검토”
- 1.27.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함경남도 함흥일대)
- 1.30.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자강도 무평리일대)  
- NSC 긴급회의(1.30.)시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까지 다기간 것”

## 2월

- 2.4.~20. 베이징 동계올림픽
- 2.4.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中 시진핑 주석에 베이징올림픽 개막 축전(노동·중통)
- 2.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신설
- 2.22.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中 시진핑 주석에 베이징 올림픽 관련 구두친서 발송(노동·중통)
- 2.27. 北, 신형 ICBM 1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3월

- 3.1.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음.”
- 3.5. 北, 신형 ICBM 1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3.8. 서해 백령도 동쪽 해상에서 北 선박 1척(7명 탑승) NLL 월선, 나포
- 3.9. 선박 및 인원(7명) NLL 선상 송환
- 3.10.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노동·중통)
- 3.11.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해위성발사장 현지지도(노동·중통)
- 3.21.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中 여객기 사고 관련 위문 전달(3.22. 중통, 3.23. 노동)
- 3.24. 北, ICBM 1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정부 성명(3.24.),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

- 4.1.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제네바, 현지 시간)
- 4.2.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국방부장관 선제타격 발언 관련 비난 담화(4.3, 노동·중통)
- 4.2. 北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 국방부장관 선제타격 발언 관련 비난 담화(4.3, 노동·중통)
- 4.4.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4.5, 노동·중통)
  - “우리는 전쟁을 반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
- 4.6. 통일부, 해금강호텔 해체 관련 입장 발표
  -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시설 철거·정비를 위해서는 남북합의가 필요, 관련 움직임에 대해 우리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를 요구”, “금강산 관련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을 북측에 구두로 전달”
- 4.8. 통일부, 해금강호텔 해체 관련 입장 발표
  - “정부는 북한이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 “상대방 투자자 자산 보호라는 남북 당국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온 사업자간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
- 4.12. 北, 강원도 산불 발생(4.9.)으로 금강산지구 피해 발생(노동·중통)
- 4.16.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함경남도 함흥일대)
- 4.18~28.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 :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 4.20.~21. 남북 정상간 친서교환
  - 南,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음.”(4.22,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北,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하시면서 호상 복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함.”(4.22, 중통)
- 4.21. 개성공단 화재 발생
- 4.25. 北,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계기 열병식(4.26, 노동·중통)
- 4.29. 북·중 화물열차 운행 중단

- 5.4. 北, 신형 ICBM 1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5.4. 통일부, 남북회담 사료 시범공개
- 5.7. 北, 잠수함발사 탄도탄(SLBM) 1발 발사(함경남도 신포일대)
- 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 5.12. 北,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 관련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노동·중통)
- 5.12.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5.12.~8.10. 北, 최대비상방역체계 가동
- 5.16.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함”,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5.16. 권영세 제42대 통일부장관 취임
- 5.16. 통일부, 코로나 방역협력 관련 실무접촉 제의
  -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 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 5.20.~22. 美 바이든 대통령 방한,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임.”
- 5.25. 北, 신형 ICBM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정부 성명(5.25.),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임.”

## 6월

- 6.5. 北, 다종 탄도미사일 8발 발사(평양시 순안·평안남도 개천·평안북도 동창리·함경남도 함흥일대)
- 6.6.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임.”
- 6.8.~10. 北,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노동·중통)
- 6.21.~23. 北,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노동·중통)
- 6.21. 통일부장관,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할 용의 언급  
-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리선권 통전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기자간담회)
- 6.28. 통일부,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입장 발표  
- “남북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함.”
- 6.29.~30.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6.29. 한·미·일 정상회의(마드리드, 현지 시간)  
- “3국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 6.30. 통일부, 北 황강댐 수문 개방 유감 표명

## 7월

- 7.1. 北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강원도 금강군이 코로나19 최초발생지역이라고 발표(노동·중통)
- 7.8. 제50차 유엔인권이사회,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제네바, 현지 시간)
- 7.11. 통일부, 금강산지구 개성공단 내 우리측 재산침해 관련 입장 발표  
-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
- 7.12. 판문점 일반견학 재개
- 7.19. 외교부,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 7.27.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전협정체결 69주년 기념행사 연설(7.28, 노동·중통)



- 8.4. 北, 코로나19 치료자 수 0명 발표(노동·중통)
- 8.10. 北,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및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 (8.11, 노동·중통)
- 8.15.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담대한 구상」 제안
  -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함.”
  -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음.”
- 8.17.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담대한 구상을 통해)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음.”
- 8.18.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대한 구상」 관련 비난 담화(8.19, 노동·중통)
- 8.22.~9.1. 한·미 연합연습(UFS : 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 8.25. 통일부,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9.1.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호놀룰루, 현지 시간)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9.4.~5. 北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9.6, 노동·중통)
- 9.5. 통일부, 남북공유하천에서의 북측댐 방류시 우리 측 사전 통보 촉구
- 9.7.~8.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채택 (9.8.~9, 노동·중통)
- 9.8.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
  -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함.”

- 9.13.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2명) 추천
- 9.23.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입장 발표
- 9.25.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안북도 태천일대)
- 9.26. 북·중 화물열차 중단 150일 만에 운행 재개
- 9.26.~29. 한·미 연합해상훈련
- 9.28.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9.29. 美 해리스 부통령 방한, 윤석열 대통령 예방 및 판문점 방문
- 9.29.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안남도 순천일대)

## 10월

- 10.1.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10.1.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
- 10.2.~5. 통일부장관, 독일 통일 기념식 참석 및 독일 연방대통령 예방
- 10.4.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자강도 무평리일대)
- 10.6.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시 삼석일대)
- 10.6. 한·미·일 연합합동훈련
- 10.6. 北 전투기(8대)·폭격기(4대), 우리군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편대비행
- 10.8. 北 전투기 150여 대,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10.10, 노동·중동)
- 10.9.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강원도 문천일대)
- 10.10.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및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 현지지도(노동·중동)

- 10.14. 北 3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중통)
- 10.14.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해안포 사격
  - \* 9·19 군사합의 위반
- 10.14. 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발표(개인 15명, 기관 16개)
- 10.14. 국방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남북합의 준수 및 재발방지 촉구 대북통지문 발송
- 10.15.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남측 포사격' 관련 발표(중통)
- 10.17.~28. 한·미 호국훈련
- 10.18. 통일부, 금강산지구 내 우리측 시설 철거 관련 입장 발표
  - "정부는 우리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
- 10.18.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
  - \* 9·19 군사합의 위반
- 10.19.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22 호국훈련' 관련 발표(중통)
- 10.19. 北,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 \* 9·19 군사합의 위반
- 10.21. 통일부장관,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
  -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류되신 분들을 석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10.24. 北,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상선 1척 NLL 침범
  - \* 軍, NLL 침범 北 상선에 경고사격 및 퇴거 조치
- 10.24. 北,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10발 발사
  - \* 9·19 군사합의 위반
- 10.24.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중통)
- 10.25. 윤석열 대통령, '23년 예산안 시정연설
  -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임."
- 10.28.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강원도 통천일대)

- 10.28.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포괄적 핵실험 금지 관련 결의안(52호) 채택(뉴욕, 현지 시간)
- 10.31.~11.5. 한·미 연합공중훈련(Vigilant Storm)
- 10.31. 北 외무성 대변인, 한·미 연합공중훈련 관련 비난 담화(중통)
- 10.31. 유엔 총회 제1위원회, 北 핵·WMD 폐기 촉구 결의안(61호) 채택(뉴욕, 현지 시간)

## 11월

- 11.1. 北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관련 담화(11.2, 중통)
- 11.1. 북·러 화물열차 운행재개
- 11.2.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 서해상 발사(평안북도 정주시·피현군일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동해상 발사(강원도 원산일대)
  - 탄도미사일 중 1발이 NLL 이남 해상완충수역 내 낙탄 / 울릉도 지역 공습경보 발령  
\* 9:19 군사합의 위반
  - NSC 전체회의(11.2.) 시 윤석열 대통령,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
- 11.2. 北, 함경북도에서 울산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 주장 (11.7, 노동·중통)
  - 합참관계자, “사실과 다름”,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님”(11.7.)
- 11.2. 北, 강원도 고성군일대에서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 100여 발의 방사포 사격  
\* 9:19 군사합의 위반
- 11.3. 北, ICBM 1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11.3.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안남도 개천일대)
- 11.3. 北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 비난 담화(중통)
- 11.3.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황해북도 곡산일대)
- 11.3. 北,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강원도 금강군일대)  
\* 9:19 군사합의 위반

- 11.3.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워싱턴 D.C., 현지 시간)
  -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음.”
- 11.4.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11.4. 한-미 연합공중훈련(Vigilant Storm) 기간 연장 발표
- 11.4. 北 군용기약 180여 대,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 다수지역에서 공중 비행훈련
- 11.4. 北 외무성 대변인,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 비난 담화(중통)
- 11.5.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 발사(평안북도 동림일대)
- 11.7.~10.22. 태극연습
- 11.7. 北 총참모부, 11.2.~5. 한-미 연합공중훈련 대응군사작전(노동·중통)
- 11.9.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안남도 숙천일대)
- 11.10. 국회 본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11.11. 통일부, 북한주민 추정 사체 인도 관련 북측 인수 의사 확인
  -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체 및 유류품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 \* 정부 브리핑(11.18.)을 통해 11월 24일까지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답변이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
- 11.11.~15.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 11.13.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채택(프놈펜, 현지 시간)
  -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11.15. 한·중 정상회담(발리, 현지 시간)
  -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음.”
- 11.16.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뉴욕, 현지 시간)
  - \*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 11.17.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
- 11.17. 北 최설희 외무상, 한-미·일 프놈펜 성명(11.13.) 비난 담화(중통)

- 11.17.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강원도 원산일대)
- 11.18. 北, 신형 ICBM 1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정부 성명(11.18.),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됨."
- 11.19. 한·미 연합공중훈련
- 11.20. 北 최선희 외무상, 유엔 사무총장 비난 담화(11.21, 중통)
- 11.22.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유엔 안보리 회의 및 장외성명 반발 담화(중통)
- 11.24.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독자제재 검토 언급 관련 담화(중통)

## 12월

- 12.1. 美 재무부, 북한 노동당 간부(3명) 독자제재 추가 지정 발표(워싱턴 D.C., 현지 시간)
- 12.2. 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발표(개인 8명, 기관 7개)
- 12.2. 日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발표(개인 1명, 기관 3개)
- 12.5.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해상실탄포사격 관련 발표(중통)
- 12.5. 北,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추정) 45여 발,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추정) 85여 발 사격
  - \* 9·19 군사합의 위반
- 12.6. 北,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추정) 90여 발 사격
- 12.6. 北,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추정) 10여 발 사격
- 12.6.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9·19 군사합의' 관련 발표(중통)
- 12.7. 제77차 유엔 총회 본회의, 북핵 규탄 결의안 채택(뉴욕, 현지 시간)
- 12.8. 정부, 국내 기업의 北 IT 인력 고용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 12.9. 통일부,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12.9. 美 재무부, 인권침해 관련 대북 독자제재 지정 발표(개인 2명, 단체 8개)(워싱턴 D.C., 현지 시간)
- 12.15.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뉴욕, 현지 시간)
- 12.15.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현지지도(12.16, 노동·중통)
- 12.18. 北,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안북도 동창리)
- 12.20.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정찰위성 시험발사 관련 담화(중통)
- 12.20. 美 재무부, 인도적 지원에 대북제재 예외 적용 발표(워싱턴 D.C., 현지 시간)
- 12.21.~22. 한·미 연합공중훈련
- 12.23.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양시 순안일대)
- 12.26. 北, 경기 강화, 서울 북부지역에 무인기 5기 이남 침범  
\*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위반  
-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12.28.)시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 "핵이 있다고 두려워 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
- 12.26.~31. 北,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노동·중통)
- 12.29. 윤석열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시 北 무인기 영공 침범 언급  
-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함."
- 12.29. 합참, 北 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방공훈련
- 12.29. 유엔사, 北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특별조사
- 12.31.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황해북도 중화군)
- 12.31.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참석(2023.1.1, 노동·중통)

# II

## 남북관계 주요 통계

###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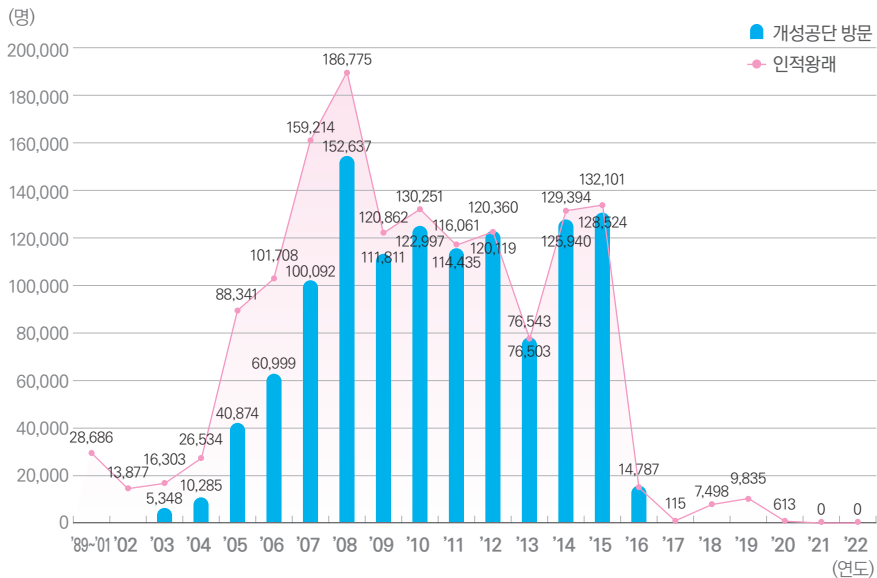
#### ① 남북 왕래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89~'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북(방북)	27,152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북→남(방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30,251	116,061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남→북(방북)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52	6,689	9,835	613	-	-	1,470,695
북→남(방남)	-	40	366	4	-	63	809	-	-	-	-	9,163
계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115	7,498	9,835	613	-	-	1,479,858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98	'99	'00	'01	'02	'03	'04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육로	-	-	-	-	-	36,028	267,971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개성 관광		-	-	-	-	-	-	-
평양 관광		-	-	-	-	-	1,019	-

구분	연도	'05	'06	'07	'08	'09~'22	계
금강산 관광	해로	-	-	-	-	-	552,998
	육로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381,664
	합계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934,662
개성 관광		1,484	-	7,427	103,122	-	112,033
평양 관광		1,280	-	-	-	-	2,299

③ 남북 차량 왕래 현황

(단위: 회)

구분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3,085	145,802	166,181	162,848	177,211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2,140	397	16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8,162	148,336	168,321	163,245	177,227

구분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110,000	190,144	198,999	23,020	-	5,179	4,214	312	-	-	1,715,285
	동해선	294	524	548	-	-	820	30	-	-	-	178,762
	합계	110,294	190,668	199,547	23,020	-	5,999	4,244	312	-	-	1,894,047

제1장

제2장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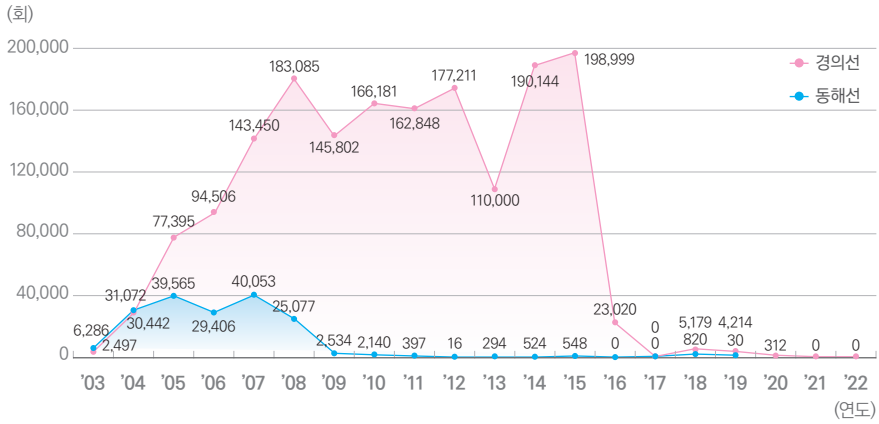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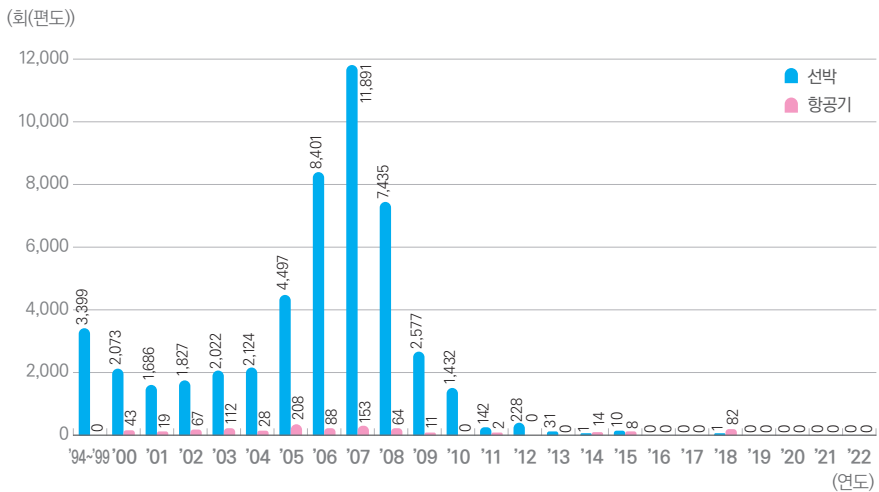
####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회(편도))

구분 \ 연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구분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선박	1,432	142	228	31	1	10	-	-	1	-	-	-	-	49,777
항공기	-	2	-	-	14	8	-	-	82	-	-	-	-	899



⑤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현황

(단위: 명/대)

구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의선 육로	인원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차량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1,309	72,929
동해선 육로	인원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차량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출경인원 합계		43,038	321,088	402,485	350,641	529,882	487,230	118,708
출경차량 합계		4,392	30,899	58,720	62,076	91,892	103,765	74,252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의선 육로	인원	126,107	115,249	121,038	76,826	126,745
	차량	83,308	81,414	88,586	55,007	95,079	99,518	11,437
동해선 육로	인원	3,051	436	53	451	1,387	1,791	-
	차량	1,027	198	8	147	262	274	-
출경인원 합계		129,158	115,685	121,091	77,277	128,132	131,595	14,786
출경차량 합계		84,335	81,612	88,594	55,154	95,341	99,792	11,437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계
		경의선 육로	인원	-	6,966	4,581	297	-
	차량	-	2,591	2,107	148	-	-	858,073
동해선 육로	인원	-	2,184	281	-	-	-	1,560,772
	차량	-	410	15	-	-	-	89,459
출경인원 합계		-	9,150	4,862	297	-	-	2,985,105
출경차량 합계		-	3,001	2,122	148	-	-	947,532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 2 남북교류협력 현황

### ①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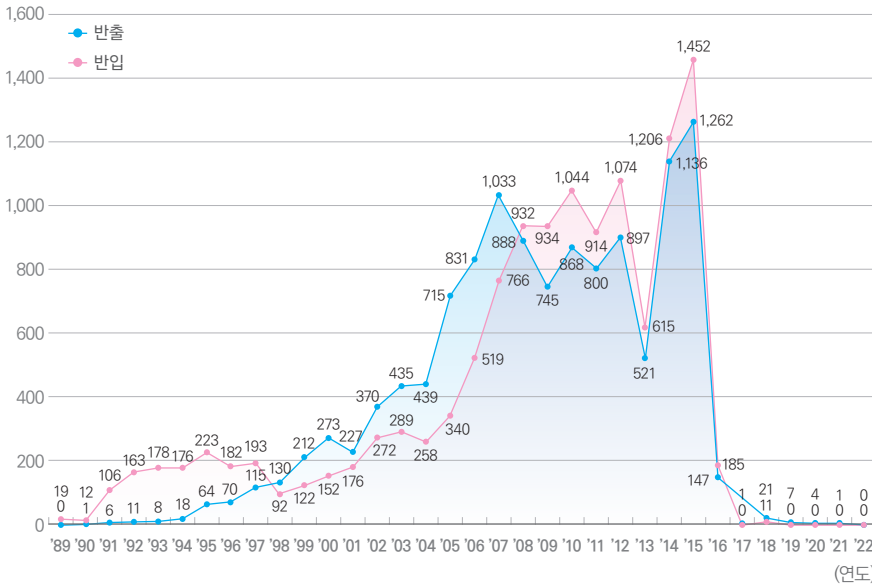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합계	19	13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구분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176	272	289	258	340	519	766	932	934	1,044	914	1,074
반출	227	370	435	439	715	831	1,033	888	745	868	800	897
합계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9	1,820	1,679	1,912	1,714	1,971

구분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반입	615	1,206	1,452	185	0	11	0	0	-	-	12,605
반출	521	1,136	1,262	147	1	21	7	4	1	0	12,256
합계	1,136	2,342	2,714	332	1	32	7	4	1	0	24,861

※ 반올림으로 인해 각 년도의 반입/반출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백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백만달러)



## ②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반입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반출	1	4	23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계	67	83	323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구분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4,720	5,023	6,356	5,940	9,337	16,412	25,027	31,243	37,307	39,800	33,762	36,504
반출	3,034	3,773	4,853	6,953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44,402	40,156	45,311
계	7,754	8,796	11,209	12,893	21,165	33,451	51,758	67,445	78,600	84,202	73,918	81,815

구분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반입	20,566	38,460	45,640	5,352	1	212	49	2	-	-	377,238
반출	25,562	47,698	55,267	6,072	3	487	385	43	4	2	433,023
계	46,128	86,158	100,907	11,424	4	699	434	45	4	2	810,261

## ③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구분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201	204	186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377
반출	492	493	530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705
계	549	570	588	634	775	757	853	859	822	795	702	731

구분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반입	359	349	362	226	1	238	82	2	-	-	910
반출	644	697	718	447	60	410	292	137	4	1	1,192
계	674	718	742	489	61	412	294	137	4	1	1,207

※ 품목은 반입과 반출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계'는 항목 간 합과 일치하지 않음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반입				반출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공업 협력 ·기타)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사업)	총액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공업 협력 ·기타)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사업)	총액
2006	441	77	1	519	116	294	421	831
2007	646	120	-	766	146	520	367	1,033
2008	624	308	-	932	184	596	108	888
2009	499	435	-	934	167	541	37	745
2010	334	710	-	1,044	101	744	23	868
2011	4	909	1	914	-	789	11	800
2012	1	1,073	-	1,074	-	888	9	897
2013	1	615	-	615	-	518	3	521
2014	-	1,206	-	1,206	-	1,132	4	1,136
2015	-	1,452	-	1,452	-	1,252	10	1,262
2016	-	185	-	185	-	145	2	147
2017	-	-	-	-	-	-	1	1
2018	-	-	11	11	-	-	21	21
2019	-	-	-	-	-	-	7	7
2020	-	-	-	-	-	-	4	4
2021	-	-	-	-	-	-	1	1
2021	-	-	-	-	-	-	-	-
<b>총액</b>	<b>2,550</b>	<b>7,090</b>	<b>13</b>	<b>9,653</b>	<b>713</b>	<b>7,420</b>	<b>1,029</b>	<b>9,162</b>

※ 반올림으로 연도별 반입/반출 유형별 '소계'와 반입/반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 달러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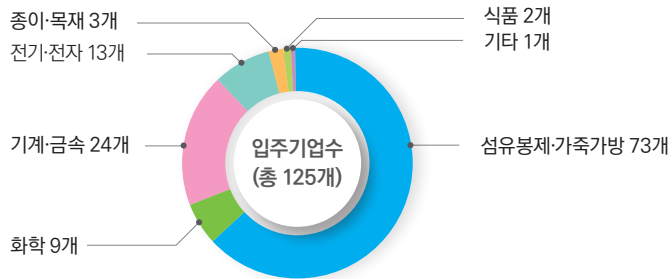
### ③ 개성공단사업 현황

※ 개성공단 통계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2016.2.10.)으로 2015년말 기준으로 작성

#### ① 개성공단 입주 기업수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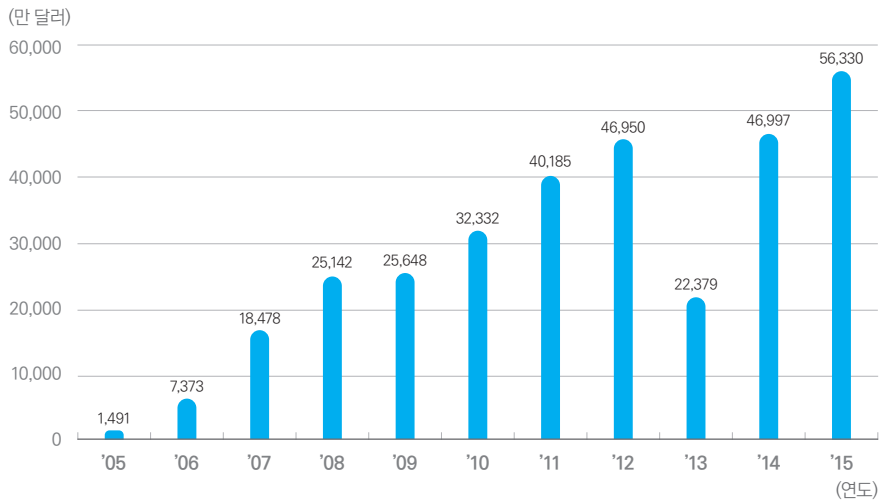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입주 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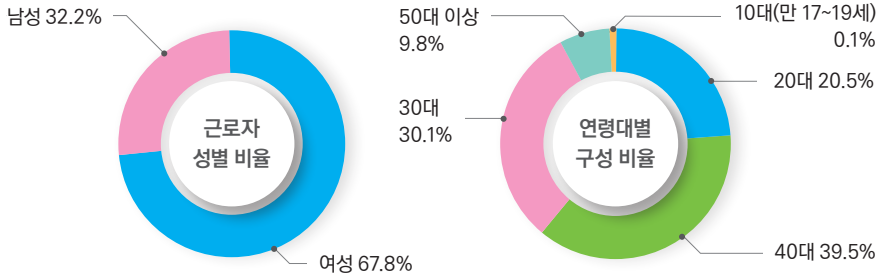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56,330	323,305



### ③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학력분포(%)			평균연령(세)		
대졸	전문학교	중졸	전체	남	여
8.1	7.1	84.8	39.0	42.3	36.4

연령대별(%)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0.1	20.5	30.1	39.5	9.8	32.2	67.8

##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 ①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정부차원						민간차원 (무상)C	총 지원액 (A+B+C)
	무상지원				식량차관 B	지원액 A+B		
	당국차원 (a)	민간단체 기금지원 (b)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 원(c)	지원액 A (a+b+c)				
1995	1,854	-	-	1,854	-	1,854	2	1,856
1996	-	-	24	24	-	24	12	37
1997	-	-	240	240	-	240	182	422
1998	-	-	154	154	-	154	275	429
1999	339	-	-	339	-	339	223	562
2000	944	34	-	978	1,057	2,035	386	2,421
2001	684	63	229	976	-	976	782	1,757
2002	832	65	243	1,140	1,510	2,650	578	3,228
2003	811	81	205	1,097	1,510	2,607	766	3,373
2004	949	102	262	1,313	1,359	2,672	1,558	4,231
2005	1,221	120	19	1,360	1,787	3,147	780	3,926
2006	2,000	133	139	2,272	-	2,272	709	2,982
2007	1,428	220	335	1,983	1,505	3,488	909	4,397
2008	-	241	197	438	-	438	726	1,164
2009	-	77	217	294	-	294	377	671
2010	183	21	-	204	-	204	201	405
2011	-	-	65	65	-	65	131	196
2012	-	-	23	23	-	23	118	141
2013	-	-	133	133	-	133	51	183
2014	-	-	141	141	-	141	54	195
2015	-	23	117	140	-	140	114	254
2016	-	1	1	2	-	2	28	30
2017	-	-	-	-	-	-	11	11
2018	12	-	-	12	-	12	65	77
2019	-	-	106	106	-	106	170	277
2020	-	7	118	125	-	125	23	149
2021	-	5	-	5	-	5	26	31
2022	-	6	-	6	-	6	20	26
<b>총액</b>	<b>11,258</b>	<b>1,199</b>	<b>2,969</b>	<b>15,424</b>	<b>8,728</b>	<b>24,152</b>	<b>9,277</b>	<b>33,431</b>

※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에서 차이 발생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건/명)

연도 구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1985	-	-	-	-	65 (157)	-	30 (81)	35 (76)	-
1990	35	44	-	6	-	-	-	-	-
1991	127	193	-	11	-	-	-	-	-
1992	132	462	-	19	-	-	-	-	-
1993	221	948	-	12	-	-	-	-	-
1994	135	584	-	11	-	-	-	-	-
1995	104	571	-	17	-	-	-	-	-
1996	96	473	-	18	-	-	-	-	-
1997	164	772	-	61	-	-	-	-	-
1998	377	469	-	109 (2)	-	-	-	-	-
1999	481	637	-	200 (18)	-	-	-	-	-
2000	447	984	-	152 (392)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
2001	208	579	-	170 (493)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
2002	198	935	-	208 (616)	261 (1,635)	9 (9)	-	398 (1,724)	-
2003	388	961	-	283 (677)	963 (7,091)	8 (8)	-	598 (2,691)	-
2004	209	776	-	188 (470)	681 (5,007)	-	-	400 (1,926)	-
2005	276	843	-	95 (261)	962 (6,957)	-	-	397 (1,811)	199 (1,323)
2006	69	449	-	54 (105)	1,069 (8,314)	-	-	594 (2,683)	80 (553)

(단위: 건/명)

연도 구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2007	74	413	-	55 (167)	1,196 (9,121)	-	-	388 (1,741)	278 (1,872)
2008	50	228	-	36 (97)	-	-	-	-	-
2009	35	61	-	23 (51)	302 (2,399)	-	-	195 (888)	-
2010	16	15	-	7 (18)	302 (2,176)	-	-	191 (886)	-
2011	3	21	-	4 (14)	-	-	-	-	-
2012	6	16	-	3 (6)	-	-	-	-	-
2013	9	22	-	3 (5)	316 (2,342)	-	-	-	-
2014	6	11	-	5 (10)	-	-	-	170 (813)	-
2015	4	26	-	1 (4)	317 (2,155)	-	-	186 (972)	-
2016	6	43	-	3 (8)	-	-	-	-	-
2017	10	46	1	1 (2)	-	-	-	-	-
2018	7	36	1	1 (1)	292 (1,996)	-	-	170 (833)	-
2019	2	16	-	1 (1)	-	-	-	-	-
2020	-	4	-	-	-	-	-	-	-
2021	-	3	-	-	-	-	-	-	-
2022	-	3	-	-	-	-	-	-	-
<b>계</b>	<b>3,895</b>	<b>11,644</b>	<b>2</b>	<b>1,757 (3,418)</b>	<b>8,262 (59,563)</b>	<b>679 (679)</b>	<b>331 (2,700)</b>	<b>4,024 (18,061)</b>	<b>557 (3,748)</b>

※ 기타: 성묘 방북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 5 남북회담 추진 현황

###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회)

연도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치	156	4	10	-	-	-	2	5	18	2	4	5	2	10
군사	-	-	-	-	-	-	-	-	4	2	9	6	5	3
경제	5	-	-	-	-	-	-	-	3	3	14	17	13	11
인도	111	-	-	3	-	4	1	-	2	1	3	7	2	4
사회·문화	34	-	-	-	-	-	-	-	-	-	2	1	1	6
합계	306	4	10	3	-	4	3	5	27	8	32	36	23	34

연도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2	합계
정치	5	13	-	-	-	-	-	1	2	3	-	19	-	261
군사	4	11	2		1	1	-	-	1	-	-	4	-	53
경제	8	22	3	4	3	-	-	22	3	1	-	4	-	136
인도	3	3	-	2	4	-	-	1	1	1	-	2	-	155
사회·문화	3	6	1	-	-	-	-	-	1	-	-	7	-	62
합계	23	55	6	6	8	1	-	24	8	5	-	36	-	667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 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 4자 회담 12회('97년 7회, '98년 2회, '99년 3회)를 별도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년도 통계에서 제외

###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현황

(단위: 건)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의서 건수	40	-	2	1	-	2	1	1	18	4	23	31	20	23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2	합계
합의서 건수	10	39	5	1	1	-	8	2	3	-	23	-	258

※ 2019년 합의서 재분류에 따라 연도별 합의서 건수 조정



##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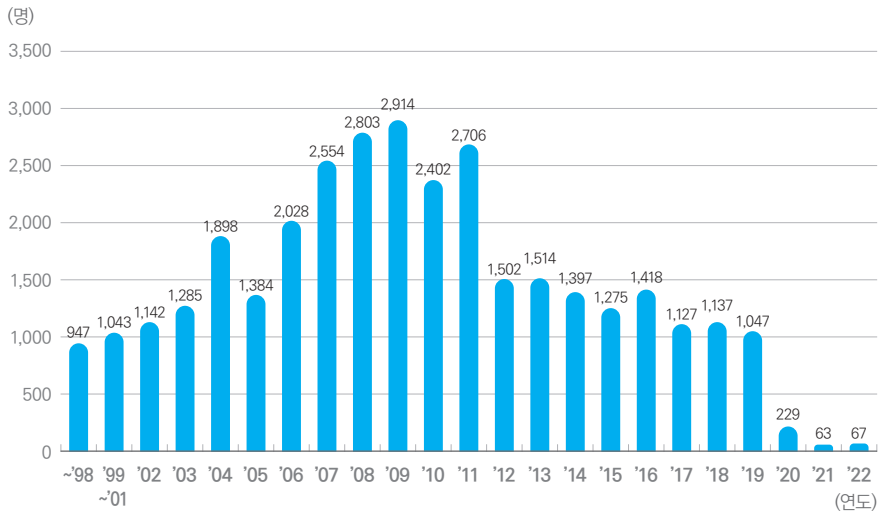
### ① 북한이탈주민 입국 세부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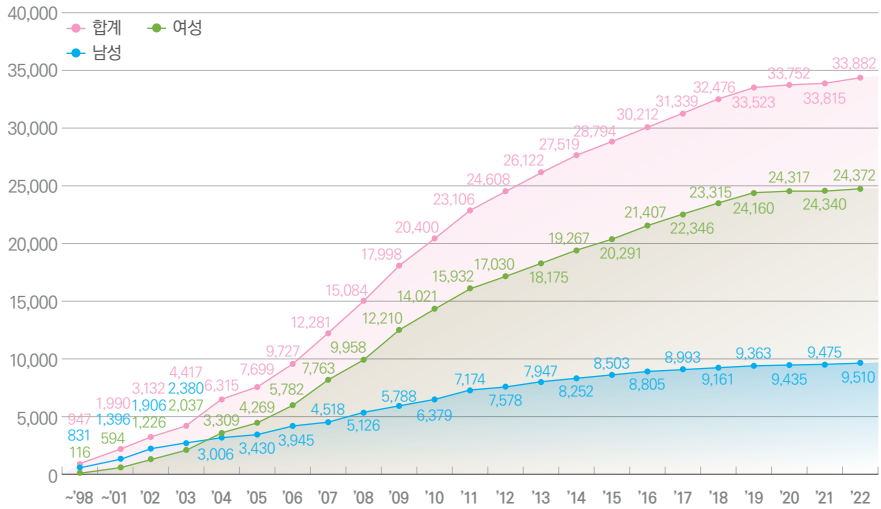
연도 구분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1%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남성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9,510
여성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24,372
합계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33,882
여성 비율	73%	76%	78%	80%	79%	83%	85%	81%	69%	37%	48%	72%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



## 입국인원 누계



## 입국 당시 연령

(2022.12월 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1	1,705	2,628	2,160	1,400	588	353	9,485
여	646	2,106	6,973	7,559	4,611	1,461	995	24,351
<b>합계</b>	<b>1,297</b>	<b>3,811</b>	<b>9,601</b>	<b>9,719</b>	<b>6,011</b>	<b>2,049</b>	<b>1,348</b>	<b>33,836</b>
비율	3.8%	11.3%	28.4%	28.7%	17.8%	6.0%	4.0%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 직업별 입국자 현황

(2022.12월 말 기준)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학생 등	계
남	411	722	4,176	3,215	93	84	238	546	9,485
여	139	161	9,223	11,955	1,460	221	526	666	24,351
<b>합계</b>	<b>550</b>	<b>883</b>	<b>13,399</b>	<b>15,170</b>	<b>1,553</b>	<b>305</b>	<b>764</b>	<b>1,212</b>	<b>33,836</b>
비율	1.6%	2.6%	39.6%	44.8%	4.6%	0.9%	2.3%	3.6%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학력별 입국자 현황					(2022.12월 말 기준)				
구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소학교 (인민 학교)	중학교 (초급, 고급)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복)	기타 (불상 등)	계
남	418	135	806	5,743	857	1,126	360	40	9,485
여	404	215	1,499	17,728	2,680	1,217	515	93	24,351
<b>합계</b>	<b>822</b>	<b>350</b>	<b>2,305</b>	<b>23,471</b>	<b>3,537</b>	<b>2,343</b>	<b>875</b>	<b>133</b>	<b>33,836</b>
비율	2.4%	1.0%	6.8%	69.4%	10.5%	6.9%	2.6%	0.4%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해당 학력별 재학·중퇴자는 포함

출신 지역별 입국자 현황					(2022.12월 말 기준)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남	224	75	1,558	78	460	379	482
여	377	89	4,455	165	655	507	345
<b>합계</b>	<b>601</b>	<b>164</b>	<b>6,013</b>	<b>243</b>	<b>1,115</b>	<b>886</b>	<b>827</b>
비율	1.8%	0.5%	17.8%	0.7%	3.3%	2.6%	2.4%

구분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 등)	계
남	777	4,853	270	185	46	98	9,485
여	2,106	14,999	203	285	33	132	24,351
<b>합계</b>	<b>2,883</b>	<b>19,852</b>	<b>473</b>	<b>470</b>	<b>79</b>	<b>230</b>	<b>33,836</b>
비율	8.5%	58.7%	1.4%	1.4%	0.2%	0.7%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 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현황

직업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수료 인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	1,002	843	1,018	785	904	807	726	788	260	38	15
남성	361	254	262	168	198	150	116	165	97	31	22
계	1,363	1,097	1,280	953	1,102	957	842	953	357	69	37

탈북아동·청소년 교육생 수료 현황																	(단위: 명)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유치반	19	53	54	63	70	69	42	38	28	28	25	36	20	23	7	-	1	576
초등반	97	104	107	142	118	179	124	97	87	49	46	43	49	57	19	1	-	1,319
청소년반	169	232	276	220	192	198	114	106	90	68	86	116	108	105	52	3	5	2,140

심화 및 직무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심화교육			직무교육		
	과정수	수료	자격증 취득	과정수	수료	
2014년	5	103	85	11	440	
2015년	6	117	72	10	521	
2016년	8	247	206	8	315	
2017년	7	291	251	7	290	
2018년	7	335	292	8	305	
2019년	7	385	314	8	247	
2020년	3	18	18	4	28	
2021년	6	42	40	4	128	
2022년	8	49	40	10	189	

※ 화천 분소 심화교육 운영 종료('20.5.8. 남북하나재단으로 업무 이관)

## ③ 주택 알선 현황

													(단위: 세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세대수	1,815	1,320	1,027	1,232	969	1,096	1,044	868	1,062	438	97	59	11,027

④ 정착금 지급 현황

정착금 지급 세부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기본금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 분할지급금은 분기별로 3회 지급	1인(초기 600, 분할 300)	900	
		2인(초기 800, 분할 700)	1,500	
		3인(초기 1,000, 분할 1,000)	2,000	
		4인(초기 1,200, 분할 1,300)	2,500	
		5인(초기 1,400, 분할 1,600)	3,000	
		6인(초기 1,600, 분할 1,900)	3,500	
		7인 이상(초기 1,800, 분할 2,200)	4,000	
주거 지원금	1인	1,600		
	2~4인	2,000		
	5인 이상	2,300		
지방거주 장려금	㉔지역: 서울, 인천, 경기 ㉕지역: 인천 외 광역시 ㉖지역: ㉔㉕ 외 지역	1인	㉕ 지역	160
			㉖ 지역	320
		2~4인	㉕ 지역	200
			㉖ 지역	400
		5인 이상	㉕ 지역	230
			㉖ 지역	460
정착장려금 (2013.4.30. 이후 사회 진출자)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미만		미지급
		500시간		120
		500시간~740시간		120시간당 20 (최대 160)
	추가 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 장려금	1회에 한정		200
	취업장려금	6개월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500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지방) 800	
총액(최고액)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구분		기준		금액
가산금	고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800
	장애 가산금	장애정도	중증	1,540
			경증	360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 시 최대 9개월 지급		1개월에 80 지급 (최대 9개월)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400(세대당)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만 16세 미만 제3국 출생 자녀 (2명 이내)		450(1인당)	
고용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지급	임금의 1/2, 월 50만 원 한도,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연 600 (최고 2,400)

\* 2014.11.29. 이후 입국자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으로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지원제도 폐지

\*\*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분할 지급

기본금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1,125	446	74	219
기본금	13,815	12,167	9,173	9,429	7,609	8,277	8,612	6,574	8,267	4,723	921	316

주거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1,125	446	96	673
주거 지원금	26,997	25,516	21,454	23,288	19,530	19,983	18,201	16,880	18,824	9,934	4,809	2,846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369	744	752	555	420	443	353	414	352	201	212	122
지급액	805	2,323	1,806	1,172	857	952	721	828	678	511	541	325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 원)			
구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	726	1,181	819	1,638	352	704	2,406	11,813	4,303	15,336
2012	1,118	1,916	1,472	2,944	496	992	3,455	17,204	6,541	23,056
2013	774	1,221	952	1,904	266	532	3,304	16,608	5,296	20,265
2014	706	1,082	879	1,757	181	362	3,631	18,238	5,397	21,439
2015	516	753	733	1,466	135	270	2,844	14,272	4,228	16,761
2016	252	360	455	910	64	128	2,483	12,078	3,254	13,477
2017	98	137	202	404	12	24	2,092	10,024	2,404	10,589
2018	61	82	131	262	14	28	1,720	8,021	1,926	8,393
2019	33	46	46	92	11	22	1,620	7,542	1,710	7,702
2020	3	4	5	10	-	-	1,482	7,048	1,490	7,062
2021	2	3	2	4	1	2	1,424	7,497	1,429	7,506
2022	0	0	0	0	0	0	1,120	6,051	1,120	6,051

가산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산금	장애	315	243	212	140	110	80	46	135	130	88	91
	고령	671	795	658	602	457	327	279	205	206	194	161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568	717	631	570	475	385	318	218	147	85	36
	장기치료	57	40	43	29	10	10	5	19	10	20	72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	-	-	-	-	79	223	394	496	450
계	1,611	1,795	1,544	1,341	1,052	802	727	800	887	883	810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개/명/백만 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업체수	2,915	2,824	2,659	2,670	2,084	1,552	964	552	245	77	37
인원	3,976	4,206	3,966	3,501	2,679	1,872	1,089	612	269	81	37
지급액	15,335	15,742	14,615	13,304	10,268	7,393	4,299	2,346	978	277	52



교육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개/명/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학수	183	200	253	218	239	232	231	235	227	230	213
인원	1,570	1,704	1,894	2,006	1,934	1,844	1,885	1,889	1,938	1,944	1,857
지급액	3,294	3,747	4,212	4,555	4,216	4,120	4,154	4,329	4,410	4,855	5,050

## 7] 국립통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550,870	71,944	68,946	119,736	133,284	185,194	97,830	145,36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인원	161,677	169,096	557,096	718,233	838,778	1,009,203	861,887	<b>4,997,377</b>

\* 2018년부터 원외 교육에 사회통일교육 실시 현황 포함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시행(2018.9.14.)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2019년부터 본격 실시, 상기 교육 현황과는 별도 집계 (2019년 665,483명, 2020년 887,608명, 2021년 972,852명 교육 참여)

## 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연수인원	3,401	38,226	39,565	38,242	39,999	23,289	5,814	1,986	9,044	<b>199,566</b>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 III

##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1] 기금 조성 실적

#### ① 남북 왕래 인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영수익 등	총 조성액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연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 조성액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20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20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20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2015	93,203	238	90,500	19,863	203,804
20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20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20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2019	100,000	-	203,000	6,574	309,574
2020	150,000	11	548,600	22,524	721,135
2021	100,000	100	237,000	4,589	341,689
2022	100,000	12	105,500	3,313	208,825
합계	5,590,513	2,857	9,138,774	1,017,211	15,749,359

## 2] 기금 사용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3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21	1
이산가족	-	6	-	-	-	-	-	0.1	4	28	13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976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867	190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146	898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5	461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3,003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190	391
원금상환	-	-	-	-	-	-	-	-	-	-	-
이자상환	-	-	-	-	-	-	-	-	-	190	391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3	5
<b>합계</b>	<b>25</b>	<b>9</b>	<b>3</b>	<b>3</b>	<b>1,826</b>	<b>106</b>	<b>193</b>	<b>876</b>	<b>345</b>	<b>5,499</b>	<b>5,941</b>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주민왕래지원	237	11	11	38	53	17	27	-	-	-	-
문화·학술·체육협력	-	7	32	75	74	69	38	30	21	26	23
이산가족	20	30	32	133	99	269	182	22	20	1	4
인도적 지원(무상)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294	192	102	24
인도적 지원(유상)	967	1,561	1,020	1,793	39	1,405	-	-	-	-	-
남북경제협력(무상)	368	763	760	2,045	1,521	1,725	1,101	415	177	167	421
남북경제협력(유상)	667	547	814	568	710	1,400	366	240	453	130	221
경수로 대출	3,009	3,287	870	227	89	-	-	-	-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1,159	9,306	1,086	5,161
원금상환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8,200	-	4,000
이자상환	626	701	795	838	983	1,007	1,012	1,059	1,106	1,086	1,161
기금관리비	6	8	12	16	18	19	21	39	29	27	28
<b>합계</b>	<b>8,624</b>	<b>10,965</b>	<b>8,671</b>	<b>10,419</b>	<b>13,441</b>	<b>13,513</b>	<b>3,844</b>	<b>2,199</b>	<b>10,198</b>	<b>1,539</b>	<b>5,882</b>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주민양래지원	-	5	-	-	1	25	0	-	-	-	431
문화·학술·체육협력	21	28	61	23	36	75	37	43	35	34	817
이산가족	21	31	52	16	7	51	44	12	23	10	1,130
인도적 지원(무상)	132	148	122	7	13	27	314	139	17	34	16,938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2,037	441	283	4,489	600	1,914	329	223	215	435	21,535
남북경제협력(유상)	746	223	36	760	27	26	26	26	23	267	9,417
경수로 대출	-	-	-	-	-	-	-	-	-	-	13,744
공자기금 예수 원리금상환	6,388	3,882	1,836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86,743
원금상환	5,300	2,91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68,393
이자상환	1,088	966	931	912	820	636	580	570	461	431	18,350
기금관리비	30	30	30	26	24	28	24	24	23	23	514
<b>합계</b>	<b>9,375</b>	<b>4,788</b>	<b>2,420</b>	<b>8,303</b>	<b>9,179</b>	<b>5,565</b>	<b>3,384</b>	<b>6,522</b>	<b>3,166</b>	<b>2,288</b>	<b>159,111</b>

※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 개별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IV

##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대 과제	실천 과제	주요 내용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1.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수립</li> <li>② 비핵화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단계적 추진</li> </ul>
	2.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추진</li> <li>②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계기시 남북대화 추진</li> </ul>
	3.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양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재개 추진</li> <li>② 사회문화교류 기반 구축</li> </ul>
	4. 남북 그린데탕트 본격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환경협력,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li> <li>② DMZ 그린평화지대화 도모</li> </ul>
	5.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보완(안) 추진</li> <li>②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운영 및 사회적 대화 확대 실시</li> <li>③ 통일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li> <li>④ 대국민 북한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li> </ul>
	6.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미래 공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프로그램 다양화</li> </ul>



대 과 제	실 천 과 제	주 요 내 용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	1.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① 북한 상황을 고려, 인도적 지원 실시 ②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콜로키움' 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① 이산가족 전면 생사확인·상봉 추진 및 교류기반 구축 ②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확인·송환 및 기념사업 등 추진
	3. 북한인권재단 정상적 출범 및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① 북한인권재단 출범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4.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강화	①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 확대 ②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 V

## 찾아보기(INDEX)

\*영어와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정리

### ㄱ

개성공단	96, 98~102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	100
개성공단기업협회	100~10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7, 99~101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80
겨레말큰사전	81~83
국군포로	56~57
국립6·25전쟁남북자기념관	57~59
국립통일교육원	172, 179, 185
국제올림픽위원회(IOC)	83~84
금강산 시설	96

### 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24~25, 95~9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9~1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6
남북교류협력	34, 76~7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4, 7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7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76
남북 그린데탕트	85~89
남북대화설명회	114
남북모의회담	111
남북 사회문화교류 거버넌스	84

남북영상회의 시스템	112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5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5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51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	52~53
남북철도·도로	97
남북출입사무소	78~79
남북통합문화센터	149~154
남북하나재단	156
남북협력기금	240~241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241
남북회담	111~113
납북자	56~57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60

### ㄷ

담대한 구상	18
대북지원정보시스템	66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69
DMZ 그린평화지대화	85, 89~91
DMZ 메타버스	90, 92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92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93~94
DMZ 평화의 길	91

## □

마음건강센터	129~130
무연고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규	147~148
미래행복통장	144~145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10~211

## ㅂ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1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139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155~15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118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2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39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140
북한인권결의안	43
북한인권국제대화	44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44
북한인권기록센터	45~48
북한인권법	40~41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47
북한인권재단	40~41
북한인권정책협의회	33, 41
북한인권주간	44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41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41
북한인권특별보고관	43
북한인권포럼	42
북한인권포털	42
북한자료센터	235
북한정보포털	234
북한지하자원넷	97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20~23

## 人

사이버 통일교육	166
사통팔달	206
사회적 대화	208
사회통일교육	188
사회적응교육	122
세계식량계획(WFP)	70

## ○

억류자	56
영농정착 성공패키지	144
우리말상담실	124
우리말어학실	124
유엔인권이사회(UNHRC)	61
6·25전쟁납북자진상규명위원회	56
이산가족	109, 241
이산가족교류지원	241
이산가족법	53~54
이산가족 영상편지	52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52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52
이산가족의 날	5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49
이어달리기	63, 69, 85
인도협력 민간정책협의회(민관협)	69
인천통일+센터	213
인터넷 통일방송(UniTV)	221~223

**ㄷ**

정착금	137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51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239
지역적응센터	139
지역통일교육센터	16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76

**ㄸ**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128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178
청소년 통일교육	183~184
7·4 남북공동성명	228

**ㄷ**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164
---------------------------------	-----

**ㄹ**

탈북청소년	145~146
통일과 담론	182
통일관	193
통일교육 선도대학	178
통일교육센터	179
통일교육 아카이브 구축	181
통일교육연구센터	180
통일교육 연구학교	185
통일교육위원	190~191
통일교육주간	171, 193

통일교육지원법	180
통일교육지침서	180
통일교육협의회	179
통일·대북정책 이어달리기	63, 69, 85
통일·대북정책 설명회(UniOn(Unification On) Talks)	192
통일로가요	220
통일문화행사	233
통일방송(UniTV)	221
통일법제	239
통일법제추진위원회	239
통일전담교사	124
통일정보자료센터	237
통일*센터	212~213
통하나봄	216

**ㄺ**

판문점 견학	114
판문점견학지원센터	114
평화통일 기반조성법	29
프놈펜 공동성명	31

**ㅎ**

하나둘학교	126
하나센터	140, 159
하나원	159
하나의원	128
학교통일체험교육	183
한독통일자문위원회	226~227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228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66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2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99
화천 분소(제2하나원)	131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2023

#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인쇄일** 2023년 4월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처** 통일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42  
**팩스** 02-2100-5679







